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3

2011 VOL.177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얄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항공, KLM 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아

"가루다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 추가	항공 + 2박		1박 추가
		2/5~2/28	12/25~2/4		2/5~2/28	12/25~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40,000	1,28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42,000	1,29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룸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Kamuela Vilas Sminyak The Ahimsa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Java Banana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ITP - Locally Managed, Globally Supported

- 주요 업무 -



항공권 예약, 발권

- ☆ 국내선 / 국제선 / 세계일주

호텔 예약

- ☆ 국내 / 해외

버스 렌탈 서비스 (코티버스)

- ☆ 보유차량 : 20인승 / 40인승

비자 대행

- ☆ 싱가포르 비자 대행
- ☆ ESTA(미주) / ETA(호주) / 중국

패키지 여행

- ☆ 발리 / 족자 / 빈탄 / 바탐 / 뿔라우스리부 / 웰빙 로사리 커피농장 ...
- ☆ 기타 국내, 해외 맞춤형 가족, 단체 여행

HANA TOUR (Head Office)

*Tel : +62.21.520.2450 *Fax : +62.21.520.5299
Korea Center Bldg, G. Fl. Jl. Gatot Subroto Kav. 58

한국인 Jina : jseung@hanagr.travel
담당 Jay : 0817.17.4654 khan@hanagr.travel

HANA TOUR (Bali)
노영만 이사
HP : 081-385-593
baliro97@hotmail.com

HANA TOUR (Bandung)
송명준
HP : 0858-6033-8711
ivy107@nate.com

HANA TOUR (Batam)
김대진 과장
HP : 0815-3609-3636
djkim@inkobatam.com

HANA TOUR (Semarang)
김남호
HP : 0813-2587-5061
nhkking@yahoo.co.kr

HANA TOUR (Surabaya)
조희숙
HP : 081-2325-2991
hanatour_sby@yahoo.co.kr

HANA TOUR (Tangerang)
전경환
HP : 0815-182-2983
ky1102@indo.net.id





서울메디칼클리닉 · 서울치과

서울메디칼이 한인병원으로 자리 잡은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교민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진료과목

- 전 과목 1차 및 2차 진료

■ 피부-비만 클리닉

- 미용 : IPL>Lifting, 피부 Scalling, 보톡스 Filler, Peeling, 여드름치료
- 비만 : 침술, Mesotherapy, 질환별 다이어트프로그램

■ 화장품 셀렉스-C 전 품목 판매

- 순수 식물성 화장품 셀렉스
- 클로렐라 등 건강보조식품 판매
- 소독약, 붕대 등 상비약, 콘돔 판매

■ 종합검진

- Type별 종합검진(혈액 및 암 검진 포함)
- 소아 종합검진, 회사 단체 종합검진
- 현지인 식모, 유모/기사 필수 기본검진
- 회사, 학교, 국적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진단서

■ 응급처치 및 수술

- 외상에 의한 상처, 골절 처치 및 수술
- 포경, 정관수술 및 음경확대 수술
- 얼굴, 전신의 점 제거 및 흉터 제거 수술
- 치핵, 치루, 항문 부위 농양 수술(레이저사용)

■ 검진 및 치료 장비

- 전자내시경
- 칼라초음파(갑상선, 유방, 복부, 자궁, 전립선 등)
- X-ray, 심전도, 체지방분석기, 레이저
- 안압측정기, 골다공증 검사기
- 자동 임상병리 검사 장비(약 60여 종의 혈액검사)
- 이비인후과 진찰 및 치료 세트(이경, 후두경, 비경)

■ 예방접종

- 자궁경부암
- 계절독감 및 장티푸스
- 소아 정기 예방접종

■ 치과 진료과목

- 소아, 성인 교정
- 임플란트 시술(Implant)
- 보철, 충치 수복, 근관 치료

■ 진료시간

- △ 서울메디칼클리닉
- 평 일 : 오전 8:30~오후 6:00
- 토요일 : 오전 8:30~ 낮 12:00

△ 서울치과

- 월~ 목 : 오전 9:00~오후 6:00
- 금요일 : 오전 9:00~오후 6:00
- 토요일 : 오전 9:00~ 낮 12:00

<한인의사>

- 월~ 목 : 오전 1:00~오후 6:00
- 금요일 : 오전 1:00~오후 6:00
- 토요일 : 오전 9:00~ 낮 12:00



☆☆☆ 치과는 예약을 해주세요!

Wisma Tendean 2nd Floor, Jl.Kapt. Tendean No.7 Jakarta Selatan

전화 : 799-1333(병원), 799-6169(치과), 팩스 : 799-6165



해를 만나면 해마음 되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마음 되고
바위를 만나면 바위마음 되고
풀잎을 만나면 풀잎마음 되고

돌아오는 어스름 길목에
모두 벗어 돌려주는 빈 마음으로

나지막이 깃을 푸는
투명한
날개

내 마음의 꽃무리 **패랭이꽃** (석죽과) 학명 : *Dianthus chinensis* L.

꽃말 : 순결한 사랑, 고귀한 보은

두해살이 꽃이며 술패랭이, 사철패랭이, 상록패랭이 등이 있다.
꽃잎은 5장으로 끝이 톱니처럼 갈라지고 가운데 점무늬가 있다.

사철패랭이는 연중 꽃을 피운다.

풀밭이나 강가 어디서나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패랭이꽃은
전 세계에 약 10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6종이 분포하고 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은호 배상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	7
차 한 잔 마시며	
/ ‘오월 사태’의 재판再版<김문환>.....	10
이달의 테마 / 음악치료	12
자카르타 스케치 / 기다리는 마음<정무송>.....	17
인터뷰 / UI 신영덕 교수.....	18
제주에 투표합시다	20
이모저모, 한인사회	22
-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개최	
-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유학생 지원	
- 동남아한상대회 알림	
- 인니에는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이 있다!	
- JJC-KOCHAM 제2차 친목 회동	
- 자유총연맹, 유소년 축구대회 참석	



표지설명 ▶▶▶

외출에서 돌아와 곧바로 TV를 켜는 사람은 외운운 사람, 오디오를 터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달의 테마는 '음악의 힘'입니다.

표지그림 : Diki Satria Nugraha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이 달에는 기사가 넘쳐 공지사항을 줄이고, 다음달로 넘긴 기사도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질학자이신 부산대 윤성효 교수가 <한인뉴스> 독자를 위해 특별히 '백두산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보내왔습니다. 점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의 이슈입니다. 연재 중인 기고문은 물론 UI의 신영덕 교수 인터뷰,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의 활동상, 무지개공부방의 1년살이도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투표합시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정자

- 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 새 임원진 구성
- 코참, 사업환경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 직스와 우이 MOU 체결
- 인니교원연합회장단 직스 방문
- 직스 초등과정 입학식

문화탐방기 <채상진 JIKS 상담교사>

- / 삶의 질이 달라졌다 30
- 새롭게 조명받는 인도네시아<신성철>.....32
- 백두산을 진단한다<윤성효> 34
- 아카펠라 페스티벌<길나연> 39
- 이병수와 함께 하는 보험교실<이병수>
 - / 몸에 꼭 맞는 생명보험 가입설계..... 40
- 삶의 향기-이 사람
 - / 무지개를 찾아서 -고재천, 강영자 44
- 생활 속의 경제이야기<최양기>
 - / 돈에 대한 가치관과 머니게임 46
-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김성월>
 - / 복조리처럼 생긴 구방의 악기, 사산도 4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이승민>

- / 이혼법 51
- 이슬람문화의 이해<안선근>
 - / 한국 이슬람의 역사 56
-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허영순>
 - / 웃어라 동해야 58
- 길 위에서<박관구>
 - / 플라시보 효과 60
- 와칭! 코리아
 - / 다음 차례는 김정일 독재정권 62
 - / 이집트를 보면서 63
-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당선작
 - / 경계에 선 소리<윤소정 JIKS 11> 64
- 동포안내문.....66
- 이 달의 시
 - / 떡가래를 보고<이승훈> 67
- 편집장이 뽑은 이 달의 책
 - / 그리스인 조르바 68
- 인도웹이 제공하는
 - 교민커뮤니티 70
- 생활정보..... 72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송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사태’의 재판再版

김 문 환 / 논설위원

튀니지아 정변으로 촉발된 도미노 현상은 이집트로 변져 지난 2월 무바라크 30년 정권은 타도되고 말았다. 부정부패, 빈곤, 인플레이, 실업, 억압정치에 찌든 국민들은 정치적인 개혁을 부르짖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였고 민심의 이반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우방국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자 1973년 대 이스라엘 전쟁 영웅의 명성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전개되었던 반정부 개혁운동이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했던 ‘5월 사태’의 형국과 너무도 흡사하여 마치 타임머신을 13년 전으로 그대로 돌려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집트 국민들이 내건 슬로건은 물론이고 야당 지도자인 이사아 압둘(Isaa Abdul Fattah)에 의해 주도된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의 ‘100만명의 행진’은 1998년 5월 20일 개혁운동의 선봉장 아미엔 라이스(Amien Rais)에 의해 주도되어 H-Hour를 불과 네 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된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의 ‘수요일의 100만명’ 행진과 다를 바 없고, 무바라크가 임명한 술레이만 부통령과 군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퇴진압력을 가하는 장면은 당시 측근 중의 측근이었던 보 하산 상공부장관을 포함하여 기난자르 경제조정장관이 주도하여 13명의 경제각료가 일괄사표를 낸 사태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회도 무바라크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위대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는 장면은 당시 대학생들이 스나안 지역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지붕에까지 올라가 농성에 돌입하자 당시 원내 국군교섭단체장이었던 샤르완 하밋(Syarwan Hamid) 중장이 국회의장인 하르모꼬(Harmoko)와 의기투합하여 수하르또에게 시한부 하야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항공기를 이집트로 급파하여 자국민을 긴급 대피시키는 작전도 당시 일본, 한국의 특별기가 자카르타에 증편되고 필리핀 수빅만에서 출항한 미 제7함대 소속 수송선이 발리섬에 기항하여 미국시민을 대피시킨 행동과 유사하다. 무바라크의 30년 압제정치와 수하르또의 32년 철권정치는 똑같이 민주화 운동권의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수하르또 정권에 사임 압력을 넣던 올브라이트(Madelein Albright) 당시의 국무장관이나 지금의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국무장관이 똑같이 여성인 점도 공통점이다. 무바라크 본인, 부인, 장, 차남 명의의 총재산이 약 500억불에서 700억불로 계산되는 것도 당시 수하르또 가족의 재산을 400억불에서 800억불로 추산하던 것과 너무 흡사한 액수이며, 권력을 세습받도록 예정되어 있던 차남 가말(Gamal)이 집권당인 국민민주당 정책위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은 당시 사회부 장관으로 입각하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던 장녀 뚜뜻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것과 똑 같은 모습이다. 당시 뚜뜻은 49세였으며 가말은 현재 47세이다. 즉각 사퇴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이유를 들어 9월 대선일까지 버티겠다는 무바라크의 미련이나 정치개혁위원회(Team Reformasi Politik)를 결성하여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수하르또의 꿈수도 비슷한 면이 있다. 5월사태 당시 자카르타 화교상권인 꼬따 지역의 대부분 상가가 초토화되었는데 카메라에 잡히는 카이로 일부지역 상가와 약탈된 박물관의 모습은 똑같이 무정부상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5월9일부터 15일까지 카이로에서 개최된 비동맹정상회의(KTT G-15)에 참석 중이던 수하르또 대통령에게 개최국의 국가원수인 무바라크는 본국의 사태



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위로를 한 적이 있다. 아마 수하르또가 현재 생존해 있다면 13년 전에 위로받았던 똑같은 이야기로 무바라크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을지도 모른다. 수하르또는 쓰리삭띠 대학생 4명이 시위 도중 의문의 총탄에 의해 희생된 지 9일만에 민심에 굴복하여 후임자인 하비비를 옆에 세워놓고 스스로 사퇴서를 읽어 내려갔으나 결국 이집트 군사최고지휘관 회의가 즉각사임 방침을 재확인하고 군중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자, 18일간 끈질기게 버티던 무바라크는 홍해 부근의 휴양지로 탈출함과 동시에 술레이만 부통령은 46초에 불과한 대통령의 사임서를 대독하자 이집트사태 대단원의 막은 내려지게 된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한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대책반을 결성하여 전임 외무부장관인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자국민의 안전보호와 철수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이는 아마 13년 전 비슷한 사태를 경험하고 아직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한 국민정서에서 나타나는 반사작용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와같이 혼미스런 국제정세와 맞물려 인도네시아 국내상황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 하다. 지난 2월 전직 부통령인 유습 깔라와 현직 족자카르타 주지사인 하멩꾸부위노 10세는 이구동성으로 인도네시아가 튀지니아 사태를 답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쟁투리은행 스캔들과 세무공무원 가유스의 수뢰사건을 서로 비장의 무기로 삼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정국의 위태로움을 지칭한 말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1998년의 ‘5월 사태’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1년 구스 두르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가정일진데, 작금의 튀지니아 사태와 이집트 사태는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겪었던 사태나 현재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반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습 깔라와 하멩꾸부위노는 현재 정치적으로 SBY 대통령과는 소원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튀지니아의 벤 알리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정권을 이어왔고 군부가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보호해 줄 통째수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집트의 경우 관료사회 자체가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에 식상해 있었으며 더구나 그의 차남에게 권력을 세습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1998년 5월 사태의 배후에는 후계자 세력간의 권력투쟁이라는 내적인 요인이 기폭제로 장전되어 있었으며, 2001년 구스 두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해산권을 무모하게 발동하다가 되돌아온 부메랑에 의한 패배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물리력행사의 중요성을 실감한 전후의 통치권자들인 하비비 대통령은 위란또 장군을 최측근에 두었으며, 뒤를 이은 메가와띠 대통령도 남편과 동향인 빨렘방 출신의 리아미자르드 리아꾸두 장군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세우고 헨드로쁘리요노 장군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포진시켜 친위화하였으며, 평생을 군부 엘리트로 성장한 SBY 대통령은 사관학교 동창생들과 동 띠모르 전장에서 맺어진 선후배 전우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처남인 뿌라모노 에디 위보워 장군을 초고속으로 승진시켜 요직인 전략사령관직에 포진시키며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운명적으로 이곳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 한인사회는 SARA(Suku, Agama, Ras, Antar Golongan)와 Amuk(폭동)이라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잡복성 질환이 거의 10년 주기로 발병하여 왔음을 보아왔듯이, 바로 13년 전의 ‘5월 사태’ 또는 10년 전의 ‘탄핵 사태’가 재연되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겪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할 뿐이다. ■



음악의 힘 *power of music*

외출에서 돌아와 곧바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며, 오디오를 켜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심할 때조차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무엇 때문에? 음악이라는 자체의 치유능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심하게 음악을 듣거나 진지하게 음악을 듣거나,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감정의 변화이다. 비단 음악을 사랑하고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감정을 변화시키는 음악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따뜻하고 밝은 햇살에 잠겨 있는 느낌, 가볍게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 보고 싶은 사람이 더욱 생각나고 잊었던 일들이 또렷해지는 느낌, 건조하게 느껴지던 마음에 갈망이 느껴지는, 타오르던 열망이 차분해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난 듯한 느낌을 당신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헌법에 음악을 배울 권리 조항을 포함시킨 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민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고 있다.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한 나라, 발전이라고는 꿈꿀 수 없었던 이 나라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5년, 전과범 소년을 포함한 거리의 아이들 11명에게 총 대신 악기를 들게 하면서부터다. 들리는 것은 총소리뿐이던 빈민가에서 아이들은 난생 처음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작았지만 그 반향은 엄청났다. 아이들 11명의 아름다운 변화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엘 시스테마(El Sistema)’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차고에서 시작된 음악교실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200개의 센터가 됐고 지금까지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음악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실

현한 것이다.

음악은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우리나라에도 엘 시스템아 같은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한국판 엘 시스템아가 생긴다는 보도도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자극되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분비가 늘어 돈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뇌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서 19~24세 성인 중 8명의 실험참가자를 선정하여 PET스캐너(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로 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온몸이 짜릿해질 정도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뇌부분에서 ‘선조체’라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등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음악은 뇌의 보상반응을 이끌어내는 신경화합물질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의학전문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음악이 치료의 목적으로 떠오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이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부상당한 많은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환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음악의 치료적 효과가 새롭게 인식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부터 음악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대두되었고 음악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생기게 되었다.

현대인에게 음악치료는 생소한 영역이 아니다. 음악으로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미 많은

경험과 사례가 있다. 음악치료에서 ‘치료’라는 개념은 신체를 ‘치료’하는 것과 다르다. 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가 부조화에서 조화로운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상의 완화 내지는 환자의 행동수정 및 변화를 말하며 일반의학에서 말하는 치료처럼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악치료는 대상과 그 목표가 특정한 병의 유무가 아니라 행동이나 심리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 정신질환자들에게 먼저 사용되었지만 이어서 정서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 감각장애, 발달장애 등의 환자들에게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노인성우울증이나 치매환자들도 음악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통증의 경감과 심리적 문제의 해결과 심리적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만 음악치료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음악치료의 혜택을 받음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음악 치료 대상인 셈이다. 우리 생활 깊숙한 영역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음악, 우리 뇌의 산물인 음악을 개개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 음악치료의 효과

다음의 글은 뇌활용 두뇌포털 브레인월드에서 게재된 음악과 관련된 뇌 정보이다.

Part 1. 뇌는 음악을 어떻게 처리할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리를 듣는 청각 영역뿐만 아니라 뇌의 다양한 영역이 함께 활동한다고 한다.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영역은 양쪽 반구의 위측두 이랑 부분이다. 거기에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과 변연계, 시상, 소뇌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뇌에서 음악을 처리하는 과정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한 멜로디를 처리할 때도 뇌에서는 인식, 집중, 기억 등 다양한 인지 과정을 거친다.

Part 2. 불면증 치료하기

가벼운 음악을 들으면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캐나다의 연구진들은 개인이 좋아하는 특정 가수의 음악이나 고전음악이 아닌 ‘개인의 뇌파에 맞게 선별된 음악’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특별한 뇌파에 맞게 조종된 음악을 듣게 되면 불안감이 덜해지고, 아늑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뇌파음악으로 2년 이상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Part 3. 뇌종양 치유하기

음악치료로 뇌종양까지 호전된 사례도 있다. 뇌 손상으로 인해 환자들은 음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지만, 특정 음 하나에 마비된 몸의 어떤 부위가 반응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 음을 중심으로 음악적 자극을 계속 주면, 진동이 몸으로 전달되어 감각기능이 점차 회복된다는 것. 음악으로 의식을 잃은 코마 환자를 깨웠다는 보고도 있다.



Part 4. 공간지각능력 향상시키기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두뇌발달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특히 ‘모차르트 효과’는 많은 음악 중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이 두뇌개발에 효과적이라는 학설이다. 미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 골든 쇼 박사의 연구결과로 이 학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팀은 대학생들에게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 장조(K 448)’를 들려주고 공간지각력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른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듣지 않은 학생들보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던 것이다. 워싱턴 대학의 프란시스 라우셔 박사의 연구결과, 역시 모차르트 소나타를 태내의 쥐에게 들려주면 출생 후 아기 쥐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으며 미로를 더 빨리 찾았다. 쥐들의 공간지각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공간지각능력은 수학이나 음악, 과학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Part 5. 기억력 향상시키는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뿐 아니라 악기연주도 두뇌개발에 좋다고 한다. 음악훈련이 단어 기억력도 높여준다는 사실은 홍콩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연구에 의하면 유년기에 악기 연주법을 배운 성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평균

16% 이상 청각적, 기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려주는 단어를 잘 기억해냈는데 간단한 형상을 기억하는 시각적 기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음악과 뇌 연구소 소장인 트레모 박사는 “음악 연주는 다양한 인지기능과 운동기능을 자극하며 이것은 다른 지적인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음악교육은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지능발달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참조 : 브레인월드 홈페이지(www.brainworld.co.kr)

물론 취미로 음악을 듣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듣는 음악 치료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음악과 음악치료의 차이를 일상적인 대화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상담의 차이로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전문적인 치료사를 찾아가기 이전에 건강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들으며 스스로의 감정조절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듣는 음악이 꼭 클래식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좋아하는 분야, 즉 팝송이나 재즈, 영화음악 등 기분에 따른 감정변화를 느끼면서 듣다 보면 자기만의 맞춤 음악목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럴 땐 이런 음악을 들으세요!

♪ 상쾌한 아침기상을 위한 음악

드보르 작 '유모레스크 Humoresques' op.101-7 / 그리그 모음곡 '페르퀀트' 제1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 op.46

♪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음악

비제 모음곡 '아를르의 여인 L' arlesienne-suibe' /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 밝고 경쾌해지는 음악

시트라우스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An der schonen, blauen Dnau' op.410 / '비인 숲속의 이야기' op.325

♪ 점점 자신이 생기는 음악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G장조 '슈피터 Jupiter' 중 제4악장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Eb장조 '영웅' op.55 제4악장

♪ 불안을 떨치게 하는 음악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Les Preludes' /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E장조

♪ 미움, 질투심을 완화시키는 음악

포레 '레퀴엠' /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7번 C장조 op.105

♪ 슬픔을 달래주는 음악

쇼팽 폴로네이즈 제7번 '환상' Ab장조 op.61 / 슈베르트 가곡집 '겨울여행'

♪ 온화한 기분이 되게 하는 음악

부르크너 교향곡 제9번 d단조 제3악장 / 스메타나 교향시 '몰다우 Vltava'

♪ 사색할 때 듣는 음악

슈만 피아노 소품 '어린이의 정경 op.15 중 '트로이메라이' / 브람스 하이든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56a

♪ 졸음을 쫓는 음악

하이든 교향곡 제94번 G장조 '놀람' / 라벨 무곡 '볼레로

♪ 수면을 청하는 음악

멘델스존 극음악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 s Dream' op.21,61 / 구노 가곡 '아베 마리아 Ave Maria'

안내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제15회 헤리티지 열린강좌 개최

“카메라의 기초 원리 및 초급 보정”

강사 : 엄 중 한

시간 : 3월 26일 9시 30분-12시

사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0816 1300 210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하여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회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 상당수의 ‘한인뉴스’를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소식과 정보를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연락처 박 정 자(편집장)
haninnewsinni@gmail.com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 1 No. 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코따 스타시온에서

기다리는 마음

코따 역은 항상 도착하는 사람들 출발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열차가 도착하고 또 출발하는 역사(驛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일까

<사진과 글 : 정무송 · 한인뉴스편집위원>



...사명감을 갖고 한국학을 진흥시킬 단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2년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학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UI 신영덕 교수에게 한국학과를 묻다

<인터뷰 : 박정자 한인뉴스편집장>

UI에는 8명의 교수와 3명의 시간 강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가르치는 과목은 한국어 문법과 역사, 문화, 언어학, 문학 등이다. 신영덕 교수는 UI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한국문학교수다. 태국 생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는 신영덕 교수는 공군사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교수로 생도들을 가르치다가 2008년 6월에 대령으로 제대한 후에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하는 한국학교수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었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발 빠른 협력자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상승 분위기에서 인도네시아에 부는 한류는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고 더욱 가깝게 소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어는 인니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필수 관문이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견의 일치로 신영덕 교수와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난해에 UI 한국어학과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졸업생들과 연락이 되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에서 만나 얘기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눈(雪)을 처음 본다고 무척 신기해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아직은 언어를 더 공부하고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겠으나, 대학원에 진학한 다음에는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스스로 없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 외에 한국어과가 외부와 교류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

12월에서 1월 사이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한 달 정도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곳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건국대 학생들이 다녀갔고, 학교 연합으로 오기도 한다.

인니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는 어떤 것이 있나.

내 수업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는 것은 그룹스터디를 통해 자기들끼리 알려주기도 하고 교수를 초청해 스스로 보충하려는 열의가 대단하다. 이번에 코린도장학금을 탄 디아Diah라는 학생의 얘긴데 울면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했다. 한국문학이 좀 어려운 과목이긴 해서, 지금은 아예 프린트물을 미리 내주어 예습을 해오도록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거의 전 학생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 온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하려고하는 의지를 볼 때 가장 큰 보람과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낀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산을 보고 온 사람과 정상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자주 상기시킨다.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생이니깐 열심히 해라. (웃음) 한국어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절까지를 알아야 한국을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예의를 강조하는 나라이므로 몸가짐이나 약속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며,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한국어과 교수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실은 내 임기가 이번에 끝나는데 2년을 연장했다. 지난

2년 동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는데,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학회로부터 부탁받은 ‘인니에서의 한류’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인니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과 애정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 반동에는 ‘한사모’ 같은 모임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류는 대중문화를 뛰어넘어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때다. 학회를 만들어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돕는 가운데 각자의 능력이 발휘된다면 어떤 어려운 일,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면 통일된 한국어교재를 만드는 일, 사전을 만드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학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도메인은 이미 신청해 놓았고 홈페이지를 구상중이다. 물론 처음에는 재정, 인력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학회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을 조직적으로 해내는 능력이 인정되면, 그래서 한국학 진흥에 효과적인 학회라고 판명이 되고 중요성이 알려지면, 관계기관들도 기꺼이 지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 사망감으로 한국을 바로 알리고 한국학을 진흥시킬 ‘한국학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2년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학회의 이름은 <인도네시아한국학교육학회>라고 가칭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출생

1976 공군사관학교 입학

1987 서울대 국문과 석사학위 취득

1994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취득

일본 쓰쿠바대학 연구교수(전쟁문학 전공)

저서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전쟁과 소설』

공저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대한민국,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주도가 The New7wonders에서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28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엔 오난 어땡하우까?
제주엔 참종 거 만썩다양!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 지금 바로 투표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 세계 440여 곳을 후보지로 전 세계 1억 명의 네티즌이 투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 28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되기 위한 최종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투표기간 : 현재 ~ 2011. 11. 11 (발표일)

○ 투표방법 : 인터넷 및 전화 투표

<인터넷 투표> : www.new7wonders.com

- 회원가입 필요

- 28개 후보지 중 7곳을 선택 / 소요시간 5분

*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신상명세 입력 후,

투표시 입력했던 개인 이메일로 보내오는 투표확인 메일에

재접속하면 투표 완료(재접속하지 않으면 불인정)

<전화 투표>

www.jejun7w.com

- 전화걸기 : 001-44-75-890-012-90(세계 공통)

- 사무국 직원의 안내멘트(영어) 후 “뵙~~~” 음이 나오면

- 제주도 코드(7715) 입력 후 thank you 멘트가 나온 후 끊어야 함

* thank you 전에 통화종료 시 무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jejun7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결선후보 28곳 :

제주도(대한민국), 아마존 열대우림(브라질), 앙헬폭포(베네수엘라), 킬리만자로(탄자니아), 펀디만(캐나다), 코모도 국립공원(인도네시아), 검은 숲(독일), 몰디브 섬(몰디브), 부티나 섬(아랍에미리트연합), 마수리안 호수(폴란드), 모허 절벽(아일랜드), 마터호른·체르비노 산(스위스·이탈리아), 사해(이스라엘·요르단·팔레스타인), 밀퍼드 사운드(뉴질랜드), 엘 운케(푸에르토리코), 진흙 화산(아제르바이잔), 갈라파고스 군도(에콰도르),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 강(필리핀), 그랜드 캐니언(미국), 순다르바스(방글라데시·인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호주), 테이블 산(남아프리카공화국), 하롱베이(베트남), 울룰루(호주), 이구아수 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 베수비오 산(이탈리아), 제이타 동굴(레바논), 위산(대만)





한-인니 원산지 검증협력 MOU 체결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개최

- 현지기업 통관애로 해소 및 양국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 -

관세청(청장 운영선)은 2월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마스 수기자타(Thomas Sugijata)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제1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시 통관혜택부여를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AEO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공정무역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성실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검증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AEO 인증기업들의 통관혜택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AEO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태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관세청장회의에 이어 베트남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ASEAN FTA 이행률 제고 등 본격적인 FTA시대에 걸맞는 기업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운영선 관세청장은 발리에서 현지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현지진출 기업의 통관애로를 인니측에 전달하였으며, 인니관세당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관세청이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지난해 운영선 청장이 인니를 방문했을 때 양국 관세청장회의 정례화를 위한 TOR(Terms of Reference)서명 이후 첫 번째 회의이며, 차기회의는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간 관세청장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및 관세청과 3자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운영선 관세청장, Thomas Sugijata 관세청장 및 무역부 Deddy Saleh 총국장이 서명했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김호영 대사를 비롯 하여 그동안 3자 MOU 체결을 주도해 왔던 이득수 관세관과 인니 관세청, 무역부 및 외교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인도네시아 원산지검증협력 MOU 주요 내용

- 원산지증명 정보 상호교환 및 기술지원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 교환 및 원산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증명 관련 상호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원산지 검증절차 - 검증요청 접수확인 및 검증결과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검증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 확보
- 원산지 현지 검증지원 - 수입 세관당국의 현지검증을 위하여 정보수집, 현지검증일정 주선 등을 포함한 상대국 관계당국의 행정지원과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 명시
- 특혜관세 배제 - 원산지검증결과 미회신, 증명서류 미제출 및 현지검증거부 등 검증협력의무 위반 시 특혜관세 배제를 명확히 하여 통상분쟁의 소지 제거 및 협정 이행의 투명성 확보
- 비밀유지 및 연락창구 - 상대국에서 제공받은 정보자료의 비밀취급의무 및 MOU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직통연락창구 개설 (한국) 관세청(원산지검증과)
(인니) 무역부(수출입진흥과), 관세청(국제협력과/관세기술과)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유학생 지원 연세대 학부에서 1년간 유학 예정

앞줄 좌로부터 Kamarudin 학생처장, Christine 한국어과장, 정무웅 이사장, Raphaella 국제처장, 신영덕 교수
뒷줄의 노란옷을 입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Diah학생이다.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2월 17일 오전 11시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총장접견실에서 인도네시아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전공 3학년인 Diah(여)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증서는 수업료 외에 생활비와 왕복항공료가 포함되어 있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인도네시아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Diah 양으로 연세대학교 학부과정에 1년간 유학할 예정이다.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업 외에도 많은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인도네시아에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인도네시아대학교 Raphaella 국제처장은 연세대학교와 코린도 장학재단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이 장학사업은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더욱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Kamarudin 학생처장, Christine 한국어 과장, 신영덕 한국어과 교수가 참석하였다.

장학혜택을 받는 Diah 학생은 한국어를 잘 배워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코린도장학재단에서는 매년 1명의 장학생을 후원해 왔으며 이번이 아홉번째 학생으로 2월 19일 대한항공 편으로 출발했다.



동남아한상대회 및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대회 개최 안내

제6회 동남아한상대회 및 2011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 2011년 3월 23일(수) ~ 3월 26일(토)

장 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Ritz Carlton Hotel, Kuningan

문의처 : 동남아한상연합회 사무국(인니코참사무국) 전화:(62-21) 527-7539 메일:kocham@cbn.net.id



인니에는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이 있다!



합창 지도 : 김영희(소프라노)
 인도네시아전통춤 지도 : Heru
 양끝춤 지도 : Rihu

‘여름에도 썰매를 탈 수 있죠~ 신기하죠~~’ 어린이합창단의 낭랑한 노랫소리가 토요일 오후의 피곤함을 얼음장 가르듯 쨍쨍 가르며 씻어낸다. 곡목을 바꾸어 ‘뱃노래’가 시작되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어린이, 흥에 겨운 모습에 예능과 장난기가 듬뿍 배어있다.

교민사회의 행사나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귀여운 앙상블을 이루며 무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을 비 개인 토요일 오후에 찾아갔다.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2005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3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한인회 문화회관 1층 연습실에서 한

국의 동요를 부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예술체험과 정기적인 공연을 통하여 자신감을 고취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통춤인 발리댄스와 현재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샤먼댄스, 그리고 유네스코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중인 전통악기 앙글롱을 배워 공연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민요 또한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예술 공연을 통하여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어린이외교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일화나 큰 행사에 참가했던 경험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한국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에서의 공연 그리고 ‘SBS 놀라운 스타킹대회’에 출연했던 기억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특히나 스타킹은 예능 프로그램인데다가 처음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이라 굉장

히 힘들었고 매일 이어지는 밤늦은 연습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 녹화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는 절대 TV출연은 하지 말자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열리는 인도네시아 솔로 지방에서의 공연 참가 또한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나올 때 현지인들의 카메라세례와 꼬레아를 외쳐 줄 때 웬만한 한류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이들 또한 너무나 뿌듯해 했구요....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은 우리 교민사회의 큰 자랑이며 희망입니다. 어떤 어린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모집은 어떻게 하는지요.

매년 2월에서 3월 초에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를 기준으로 3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한인교민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달 50만 루피아씩 회비를 내어서 모든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인뉴스 3월호의 테마가 ‘뮤직테라피-음악의 힘’ 입니다. 음악전문가로서 음악이 성장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경험하신 사례를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음악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모습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어딜 가나 다 통하는 것이 음악이라 생각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물론 훌륭한 선생님께 레슨을 받는 일도 많

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대중음악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순수음악을 등한시 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처음 합창단을 만들 때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어색했는데 동요를 배우고 부르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듣고 표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성품 또한 밝고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현지 어린이 합창단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더 묻자, ‘무계획이 계획’이라며 김영희씨가 웃으며 대답한다. “지금 저희 합창단의 공연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월 22일 빠르따미나회에서 한국기업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 저희들이 샤먼댄스를 추고 한복을 입고 대장금 주제가인 ‘오나라’ 와 동이의 주제가인 ‘부용화’ 를 부를 예정입니다.”

2005년 창단 이후,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은 어버이날 행사는 물론 광복절, 개천절, 한-인니교류문화행사 등 많은 중요 행사에 초대되었다. 최근 2010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문 공연(경기도 안산-국경 없는 마을), SBS 놀라운 스타킹 대회 출연, 한-인도네시아 수교 38주년 기념행사(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 인니일관제철소 부지 착공식 행사(POSCO 주최), 송년의 밤(재인니한인회 주최) 등에 초대되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JJC-KOCHAM 제2차 친목회동

지난해에 이어 JJC(자카르타재팬클럽)-KOCHAM(한일상공회의소)의 두 번째 만남이 지난 2월 19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카백골프클럽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한일상공인을 비롯해 양국 대사도 함께 참석해 동반자로서, 선의의 경쟁자로서, 한인상공인의 우정과 미래를 약속하고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자유총연맹, 유소년축구대회 참석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박동희)는 2월27일 땅그랑에 있는 루달 군부대에서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유소년축구대회에 참석하여 군과 청소년, 지역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이 대회는 지난 2월 6일부터 루달 군부대가 초청한 jabodetabek지역 축구팀들이 리그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된 103팀(12세 이하 40팀, 14세 이하 31팀, 17세 이하 32팀)이 3개의 경기장에 나누어 연령대별로 결승전을 치른 것이다. 루달 군

부대는 매년 창립 행사로 유소년축구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대회이다. 이 군부대의 축구장은 평소에도 땅그랑 FC가 애용하고 있어서 오래 전부터 군과 이곳 지역민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박동희 회장을 비롯한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가 동참하여 지역민들과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



사를 받았다. 이날 경기와 시상을 마치고 주최 측과 진행 팀은 마무리 대회사에서 꼬레아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했고 유소년 팀들은 각각 대절해온 버스와 트럭으로 트로피를 치켜들고 “오랑꼬레아 뜨리마 까시!”로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화산 . 쓰나미 . 지진 재해의연금

2010. 12. 31. 현재

번호	회사명	대표자	금액		
			USD	RP	
1	KORINDO GROUP	승은호		20,000,000	
2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강호성		5,000,000	
3	PT. DAYUP INDO	석웅치		5,000,000	
4	PT. DONG JUNG	조규철		5,000,000	
5	PT. HANINDO EXPRESS	신기엽		5,000,000	
6	HANKOOK CERAMIC	차상만		10,000,000	
7	PT. INWHA	황의상		5,000,000	
8	PT. KIPCO	김영만		10,000,000	
9	PT. POWERTECH	전민식		2,000,000	
10	PT. UNITRA ADIHJAYA	박광용		2,000,000	
11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5,000,000	
12	YSM & PARTNERS	이승민		1,000,000	
13	땅그랑 한인회	이세호		27,622,000	
14	색스폰 동호회	강희중		3,000,000	
15	아름다운 나눔	강희중		30,000,000	
16	외환은행 나눔재단	조용우		90,050,000	
17	한인연합교회	김학진		10,000,000	
18	한인청년회	장윤수		10,000,000	
TOTAL					245,672,000

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새 임원진 구성

“한인사회에 힘과 용기를 주는 일에 역할을 늘려갈 계획이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음문 열고 나아갈 것”



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는 2월 21일 대사관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지난 총회에서 선출된 박미례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에 박순화, 이경은, 정현옥, 현병선, 총무에 김선영, 이순재, 정경임, 서기에 양순금, 회계 박혜숙, 오영란으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영상물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관람과 ‘MBTI (강사:김형주)’ 를 통해 각자의 성향을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박미례회장은 “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는 역대 회장단의 노고와 회원들의 관심 덕분에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 참여와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위로의 메신저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다가올 6-7만 한인사회에 힘과 용기를 주는 일에 역할을 늘려갈 계획이며, 한인회를 비롯한 다른 한인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음문을 열고 나아간다고 앞으로의 활동의지를 밝혔다.

KOCHAM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 전달

KOCHAM은 지식경제부와 대한상의의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한국위원회를 통해 인니 측에 전달했다.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대상국의 사업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보고서로는 최초로 작성된 것이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한인상의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작년 5월 발리에서의 착수 워크숍을 시작으로 7개월여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 미얀마에서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는 KOTRA 자카르타 KBC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국어의 3개 국어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련 부처에도 전달되어 사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와 ‘인도네시아 국립대’ MOU 체결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중복)는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교민, 나아가 한국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2월 11일 UI(UNIVESTASI INDONESIA)에서 밤방 인문대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과 JIKS 선중복 교장, 정무용 재단부이사장 및 학교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한 MOU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려는 JIKS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고 선도하려는 노력의 성과이다.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의 확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실천적인 협약으로 인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UI에서 실시하는 인도네시아캠프에 참가하여 인도네시아의 악기, 춤, 언어, 음식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UI의 한국어과 학생들은 JIKS에서 사물놀이, 홈스테이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와 UI는 언어, 교육은 물론 문화 전반에 걸친 체험과 이해, 공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두 학교에서 공유하게 될 다양한 문화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JIKS에서 모색하고 있는 학교의 정체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대학인 UI와의 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선중복 JIKS교장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활동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

여 SPEC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현지 학교와의 교류 및 체험 학습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교환학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에만 진학할 것이 아니라 UI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인도네시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맞춤형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각 지역 전문가 양성 등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과정 및 전반적인 사항을 개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UI측에서도 JIKS와 협약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UI의 크리스틴(Christine) 한국어 과장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많은 교류행사가 개최될 것이며,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벌써부터 행사를 계획하는 모습이었으며, 참석자 중 우리나라의 한 유명대학에서 인니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어니 잠하리(Ony Jamhari) 씨는 “Senang” 과 기쁘다 “는 표현을 인니와 한국어로 반복하며 진심으로 이번 협약을 환영했다.



인도네시아교원연합회장단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방문

2011년 2월 17일 오전, 인도네시아교원연합(PGRI, Persatuan Guru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교연) 회장 Bapak Sulistiyo, 부회장 Ibu Unifahff를 비롯한 네 명의 위원들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선종복, 이하 JIKS)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의 370만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모임인 인니교연의 JIKS 방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과 인니교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JIKS 선종복 교장이 그 가교 역할을 맡게 되어 이루어졌다.

인니교연 관계자들은 JIKS 교장실에서 만나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JIK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수업, Reading Assistant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어교육,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 수영 수업, 원어민 영어수업,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용한 음악수업을 참관하였다. 이 방문에서 Sulistiyo 인니교연 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배울 수 있도록 JIKS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열리는 JIKS 교사들의 교육 세미나나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JIKS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종복 교장은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아울러 한국교총과 인니교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JIKS가 힘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인니교연의 JIKS 방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육문화 교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교육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외한국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JIKS 초등과정 입학식

2011. 2. 8.(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귀여운 1학년 학생들과 여러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학년도 초등과정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올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입학생은 남학생46명, 여학생 35명 총 81명이며 3개 학급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환경에 긴장한 입학생들을 위해 5,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였으며 입학식에 참석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입학 허가 선언 후 선종복 교장선생님께서 태권도 교육, 1인 2악기 다루기 등의 여러 가지 학교 특색 사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부모님께 다짐하였다.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의 소개가 있는 후 재학생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반별 기념 사진촬영으로 입학식은 마무리 되었다. 신입생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이 입학식 첫날 다짐처럼 힘차고, 씩씩하고, 즐거운 학교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옛 자카르타 문화 탐방을 통하여

채 상 진(JIKS 상담교사)

삶의 질이 달라졌다

2월 19일(토), 필자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다. JIKS 초빙교사로 선발되어 2010년 12월 26일에 처음 도착한 위자야 근처 게스트 하우스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때에는 현지 사정을 잘 몰라 답답하고 행동반경이 좁은 상태였다. 이때에는 주로 백화점을 중심으로 왔다갔다하는 일상이었다. 필자가 이 시기에 궁금하고 갈망했던 것은 “어딘가에 자카르타의 역사와 문화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호기심을 해결하지 못한 때였다.

시간이 조금 흘러 JIKS에서 바쁜 학교생활을 하던 중에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문화 탐방’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년에 걸쳐 이어져오는 ‘193회’라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정말 대단한 열정과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드디어 2월 19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화 탐방의 날이었다. 우리 팀 일행은 출발 장소인 한·인니문화연구원에 도착하여 실내가 크고 쾌적한 블루버스에 옮겨 탔다. 출발과 동시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신 분은 그 유명한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이신 ‘사공경’ 선생님이셨

다. 필자는 그때 처음 대면이었는데 웬지 모를 편안한 인상과 친절함에 좋은 호감을 가졌다.

버스를 타고 오랜 역사 자카르타의 출발점 ‘순다 끌라빠(Sunda Kelapa)’ 항구를 향했다. 한인회에서 출발하자마자 하늘에 떠 있는 듯한 하늘의 아버지 동상인 ‘디르간따라(Dirgantara)’를 보았는데, 이는 마하브하라타 전설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용감하게 우주를 개척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이 동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빨리 완성되기를 희망해 개인차를 팔아 비용을 충당했다고 한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도착한 순다 끌라빠는 자카르타 6개의 항구 중 하나로서 12세기 이후 가장 번성한 항구였으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시대에는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부둣가에 묶여 있는 수많은 범선들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조금 특이한 점은 폭이 좁은 건널판 사이로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서커스 하듯이 자유자재로 건너는 항만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부둣가에서 조그맣고 긴 모터 배를 타고 물살을 가르면서 수상가옥이 있는 ‘루아르 바탕(Luar Batang)’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 배쪽을 타고 골목길에 펼쳐진 각양각색의 조그만 가게들,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수상 가옥 사이사이로 탐방은 계속 됐다.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들어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집들이 앙상하게 물 밖으로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그 주변에는 수많은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있어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남녀노소 모두는 행복한 모습이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노라면 필자 역시 옛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듯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간단하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먹을 것을 양손에 들고 우리를 배웅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해양 박물관(Museum Bahari)’으로 향했다.

이곳 해양박물관은 원래 네덜란드 상인들이 향료, 과일, 후추, 커피 등을 저장하던 창고였으며, 건물이 위치한 곳이 바다 근처라 염분으로 인한 부식에 강한 주석과 동(銅)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외벽의 높이가 2m가 넘으며 내부도 성벽과 같이 두께가 단단하여 일본 통치기 때에는 군수품 저장소였으며, 각 전시실에는 여러 종류의 배들과 박제된 해양 생물,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점심 식사는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동인도회사 조선소를 수리하여 만든 갈랑안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315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온교회’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18세기의 대형 파이프 오르간, 바로크식의 설교단, 갤러리, 구리 상들리에들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을뿐더러 지금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네덜란드 식민 시절의 마지막 남은 올라가지 않는 다리 ‘도개교(跳開橋)’에서 사진 촬영을 마치고, 탐방 마지막 장소인 ‘자카르타역사박물관(Museum Sejarah Jakarta)’으로 향했다. 이곳은 파타힐라(Fatahillah) 광장과 연결되어 400년의 역사를 지닌 박물관으로서 여러 개의 사연이 있는 감옥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우물’ 감옥이었는데 정치범을 주로 수용한 이 감옥은 8m 깊이의 우물에 죄수를 5~6명 정도 집어넣고 쇠창살로 된 덮개를 덮어 목까지 물을 채운 뒤 거머리를 풀어 2~3일 이내로 죽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물 밑쪽에 있는 자바해로 연결된 터널 문을 열면 시체가 바로 바다로 떠내려간다고 한다. 또

한 우물 밑의 수로는 순다 끌라빠항 부근의 전망대까지 이어지며 지하 통로의 길이가 8km나 되며, 우물에 물을 뺀 뒤에는 군대가 이동하는 통로로도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인간의 능력과 상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다.

역사박물관 길 건너 왼쪽으로 가면 그림자극으로 유명한 ‘외양박물관(Museum Wayang)’이 있다. 외양은 ‘인형’을 뜻하며 선조의 영혼을 인형의 그림자에 머물게 하여 공양을 드리고 현세의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작은 공연을 감상하고, 근처에 위치한 19세기 낭만이 숨 쉬는 특별한 카페 ‘바타비아(Vatavia)’에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곳 역시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카페에 포함되어 유명한 곳이다. 수많은 초상화와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조금 재미있는 것은 화장실에 퇴폐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사진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남자 화장실은 앞면이 전신 거울이며, 함께 소변을 보고 나면 물이 전신 거울 통해 내려오는 황당한 경험도 하게 된다. 차 한 잔을 하고 나서 한·인니문화연구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사와 함께 느낌을 발표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루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주최 측에게 감사함을 전달했다. 필자 역시 193회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순다 끌라빠 중심의 옛 자카르타 문화 탐방을 통하여 문화 충전을 새롭게 하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이러한 소중한 체험 활동들이 순수하고 착한 우리 JIKS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로 다가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다. 끝으로 자연이 주는 축복과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를 찾고 감상하는 기쁨에 행복해 하시는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님의 헌신과 봉사, 열정에 거듭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사공경(2005)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새롭게 조명 받는 인도네시아

신성철 <데일리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
dailykoreaindonesia@gmail.com

‘포스트 브릭스’ 시대의 일등 주자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아이콘인 호텔인도네시아가 수년전 그랜드인도네시아라는 복합쇼핑몰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등 수디르만 거리를 따라 새롭고 높은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이 속속히 들어서고, 주차장을 방불케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와 오토바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에서 자카르타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올해 투자 유망 시장을 일컫는 신조어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인도네시아다.

골드만삭스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를 지목하면서 MIKT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빅스’ (BIICs;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를 강조했다.

그 밖에 다른 기관도 MAVINS(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공), VIS-TA(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공·터키·아르헨티나) 등의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모두 ‘포스트 브릭스’ 시대의 일등 주자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2억4,0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중국·인도에 이어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5% 전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인도네시아로 몰려들고 있다. 한국 기업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가 올해에도 6.2%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전망에서 “올해 아시아 신흥국 중 인도네시아를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매력적

인도네시아는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매년 5% 이상 경제성장을 보였고 2기 유도요노 정부가 고속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치·경제적 노력 역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유도요노 정부는 2014년까지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사회 인프라 건설에 1,4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프어스(S&P)는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무디스는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40세 이하 인구가 전체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구성원이 젊으며 200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590달러 수준으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고, 인구 중 10%인 2,000만 명은 선진국형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석유, 가스, 석탄, 목재, 고무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팜오일, 고무, 코코아, 커피 등 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이다.

한국기업, 인도네시아로 몰려온다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로 몰려오고 있다.

80년대 신발봉제업체 위주에서 90년대 가전회사에 이어 요즘에는 2억 4,0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노리는 소비형 기업들마저 속속 진출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에 롯데마트 진출에 이어 최대 50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화학 시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가 지난해 10월 국영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손잡고 찰레본에 일관제철소 건설에 나섰으며, 한국타이어가 연간 600만개 타이어를 생산하는 제7공장을 버카시에 짓기로 했다.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관심을 반영하듯 증권 회사와 현지 은행 인수 작업도 활발하다.

한국기업, 인도네시아에 120억 달러 투자 추진

유도요노 대통령이 특사단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다.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50여명의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 인사가 포함된 특사단은 방한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고 한국기업들



이 인도네시아에 모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경제발전계획에 한국이 주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오에 따라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포스코 찰레본 일관제철소 건설 60억 달러, 한국타이어 버카시 공장 10억 달러, 롯데마트 현지매장 22곳에서 40곳으로 확장, 중부발전 찰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8억 5천만 달러 등이다.

양국은 또 조선 부문의 대우조선해양-DKB조선사, 정유 분야의 SK에너지-빠르따미나, 현대자동차와 현지 합작업체 간 협력 확대방안도 협의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올해 인도네시아에 1,300만~1,5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을 참고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팜유, 부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특사단 방문 후속 조치로 오는 3~4월께 양국 간 경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무협의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성장과 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환율 급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최대 복병이다. 루피아화의 가치 상승은 수출 저해 요인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핫머니의 유입을 촉발,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상대적으로 긴 단기채를 발행키로 했으며, 7월부터는 단기채 투자자들이 최소 1개월을 보유한 후 되팔 수 있도록 했다.

고질적인 부패, 열악한 인프라와 엄격한 노동법 역시 문제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청렴도는 우간다나 에티오피아와 비슷한 126위권이다.

안 내



한 · 인니문화연구원 문화탐방

194회 >>

일 시 : 3월 19일(토)

탐방지: 보고르 식물원 / 보고르 궁전 외

195회-197회 >>

일 시 : 4월 중순 (예정) 2박 3일

탐방지: 디엥고원 / 족자 보로부두르 외)

신유희 0818-708-228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sagong@hotmail.com

Indonesian & Korean Culture Corph(카페)

Http://cafe.daum.net/IKCC



백두산을 진단한다

윤성호 교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천여 년 전 지금의 백두산 천지를 만들어낸 대폭발은 역대 화산 분화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대규모의 폭발이었다고 한다. 최근 폭발은 1903년이었다. 100년 주기로 분화해 온 백두산은 학자들의 말대로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는 우려의 시기를 맞았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온도가 약 2개월 동안 2도 정도 하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미지역에선 화산폭발 1개월 뒤부터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화산에서 분출된 황산화물의 경우 지상에서 8km 이상 상공으로 올라가 북미와 그린란드 대륙까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학계에서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1~2012년 중점연구과제로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환경영향 평가’를 선정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기고문은 최근 국내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백두산 분화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다. 특별히 <한인뉴스> 독자들을 위해 기고해주신 부산대 윤성호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1. 백두산은 활동적인 화산 즉 활화산이다

- 백두산 화산체의 형성 과정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라고 불리는 칼데라 호수가 있다. 이 천지 칼데라 호수의 장경은 4.4km × 3.37km이며, 천지의 면적은 9.82km²이며, 여기에는 약 20억 톤의 물이 담겨있다. 천지수면의 해발고도는 2,189m이며, 최대수심은 374m이고, 주변에는 높이 2,500m 이상의 외륜산이 둘러싸고 있다. 외륜산 중 가장 높은 곳은 장군봉으로 해발고도 2750m이다. 백두산 주변의 개마용암대지의 면적은 18,350km²에 이르며, 그 중앙부의 백두산 성층화산체 정상부 부근에는 홀로세 역사시대 분화물인 강하화산재와 부석, 용결회류용회암 그리고 흑요석이 산출된다. 백두산 산사면 주변의 골짜기와 압록강 상류의 대협곡에는 화성쇄설류 퇴적층이 분포하며, 침식되어 토주(土柱: earth pillar)를 형성하며 노출되어있다.

약 2,840만 년 전인 신생대 올리고세에 광활한 만주 평원에서 북동-남서방향의 심부단열대가 만들어져서 이를 따라 소규모의 현무암이 틈새 분화로 분출된 후, 약 1,500만 년 전에서부터 1백만 년 전까지 이 틈새를 따라 현무암이 대량으로 분출되어 현무암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틈새의 한 지점을 중심으로 분출하여 현재의 천지 하부에 장백산 순상화산체가 형성되었다. 그 후 화산 휴지기를 지나고 약 6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중심분화에 의하여 조면암 및 알칼리유문암 화산활동으로 화성쇄설물의 폭발적인 분화와 용암 분출이 교대로 여러 차례 발생하여 백두산 성층화산체를 형성하였으며, 약 4천 년 전과 1천 년 전에 부석을 위주로 하는 폭발적인 대분화로 성층화산체의 산정부가 파괴되고 함몰하여 천지 칼데라를 형성하였다. 현재 모습의 천지 칼데라 호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1천 년 전에 완성되었다. 그 후, 서기 1403년, 1668년, 1702년, 1903년 천지 칼데라 내에서 소규모로 분화한 역사시대 분화기록을 가지고 있다.

장백산맥의 최고봉인 백두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대한 화산복합체로서 형성되기까지 3단계의 과정, 즉 현무암 용암대지 형성단계, 조면암 성층화산체 형성단

계, 마지막으로 산정부의 칼데라형성 단계를 거쳤다. 좁은 의미의 백두산은 성층화산체이지만, 넓은 의미의 백두산화산체는 용암대지, 용암고원, 순상화산체, 성층화산체와 칼데라가 함께 존재하는 화산복합체이다.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홀로세 분화동안 주로 거대한 플리니안(plinian) 분화양식에 의해 강하화산재를 뿜어내고 뒤이어 큰 규모의 화쇄류를 동반 발생시킨 매우 위험한 화산체였다. 화산학적으로 백두산은 지하에 열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활화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10세기 백두산의 폭발적 분화 사건

백두산 천지 칼데라의 직경은 약 6~7km이며, 칼데라 내에서 크게 3개의 큰 분화구를 추적할 수 있다. 알칼리유문암질 강하부석퇴적층은 칼데라 외륜산인 서쪽 청석봉에서 남쪽 와호봉을 지나 남동쪽 장군봉과 동쪽 해산 일원에 주로 분포하며, 조면암질 강하부석퇴적층은 북쪽의 천문봉 일원에 주로 분포한다. 이로부터 이들이 분화한 직경 3.5~4.5km의 분화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는 대기 상층으로 약 25km 이상 솟구쳤으며, 편서풍과 제트류를 타고 함경도를 지나 동해를 건너 일본과 태평양으로 비산하였다.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려 현재에도 약 5cm 이상 쌓여 있는 곳이 발견된다. 이 화산재를 B-Tm ash라고 부르는 데, 이때 대략 83~117km³(최대 150~170km³)의 화산분출물을 뿜어내고 화산폭발지수 7.4로 역사시대 최대의 화산분출 사건을 기록하였다. 역사시대 최대의 화산분화 사건으로 기록된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의 1815년 분화 때 분출물의 양이 100km³으로 화산폭발지수 7.1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해 여름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백두산의 분화 사건은 아마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5월 아이슬란드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에서 분화된 화산분출물의 양이 0.1km³으로 화산폭발지수 4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백두산의 천 년 전 폭발적인 분화는 얼마나 큰 화산활동이 일어났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서기 79년에 분화하여 폼페이시를 매몰한 베수비우스 화산과 1980년 5월의 세인트헬렌즈 화산 분화 사건은 화산폭발지수 5로 알려져 있다.

2. 현재상태와 분화가능을 나타내는 전조현상

일반적으로 화산분화에 앞선 지질현상을 화산분화의 ‘전조현상’ 이라고 한다. 특정 화산에서 이러한 전조현상들이 매우 빈번해져서 화산분화가 임박하였다는 주의나 경고에 도달하면 우리는 ‘화산위기’ 를 맞이하였다고 말한다. 화산위기에 도달하여도 그 전조현상과 화산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만 화산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백두산에 최근 들어 이러한 화산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 6월 말, 평소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화산성 지진활동이 빈발해지고 지진규모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6월 28일 중국 동북부 왕청(汪淸)현에서 리히터 지진규모 M=7.3의 심발지진이 566km 깊이에서 발생한 후 백두산 지역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군발(群發)로 급증하였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지진규모 M=3.7까지, 월 최대 270회 정도 기록된 지진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그 진앙이 밀집하고, 지진이 발생한 지하의 진원은 평균해수면 아래 -2 km ~ -3 k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근접하였다. 이러한 화산성 천발지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사면을 따라 균열(2003년 8월 23일, M=2.3 지진발생 후), 산사태(2004년 9월 8일, M=3.7 지진발생 후)와 붕괴(2003년) 등이 일어났고, 2004년도 여름에는 지하삼림의 나무들이 원인 모르게 말라 죽은 것이 관찰되었는데, 병충의 사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마그마방에서 분리되어 지하의 틈새를 통하여 지표로 방출된 유독화산가스에 의해 말라죽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천지온천의 수온이 증가하고, 온천에서 나오는 화산가스 중 헬륨(He)과 수소(H₂)의 함량이 10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수준계(水準槓)에서도 7cm 용기한 것이고 관측되었으며, GPS 관측에서 천지 칼데라 호수 주변의 지형이 10cm 이상 팽창하였음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화산전조현상이 2002년 6월 이후 급증하였으나 2005년 말 이후 지진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화산성 지진규모와 군발지진 특성은 여전히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두산 화산분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ENVISAT 위성으로부터 백두산 천지 칼데라 일원이 팽창하고 있음을 감지(2004년-2005년 2cm 팽

창)하였다. 이로부터 일본 과학자들은 백두산 천지 칼데라의 산정부로부터 지하 약 5km 지점(해수면 하 2~3 km 지점)에 약 1.5×10⁶m³ 규모의 마그마방이 존재하여 팽창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였다. 러시아는 2006년 10월 18일 Terra위성 관측으로부터 백두산으로부터 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북한의 핵실험(2006년 10월 9일)으로 발생한 지진(M=3.6)이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방을 교란하고 활성화시켜 고온의 열을 가진 가스를 방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러시아 국가 비상사태성과 관련 연구소에 지속적으로 백두산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백두산 지역에서 2009년 5월 25일 M=4.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0년 2월 18일 두만강 하류 러시아-중국-북한 국경부근 러시아 땅에서 M=6.9 강진이 진원 깊이 574km에서 발생하였는데, 아마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방을 자극하여 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추측된다. 2002년도 이후 화산성 군발지진의 진앙을 분석하여 보면, 천지 칼데라 일원에 밀집하여 N50W방향과 N10W~NS방향의 2조의 단층을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화산성 지진의 발생 심도는 지하 -2 km에서 -4km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천지 호수면의 해발고도가 2,189m임을 고려하면 천지수면으로부터 지하 2km에 까지 도달하여 나타난다. 이는 일본방재과학연구소가 GPS분석을 통해 지표면의 2cm 팽창으로부터 추론하여 분석한 내용과 잘 일치한다.

3. 백두산 분화시의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활동적인 화산체인 백두산 천지 칼데라 화산의 지하의 마그마의 거동 즉 마그마가 수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여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방이 활동적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마그마방이 상승하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 또 언제쯤 지표에 도달하여 천지 물과 만날 것인지? 혹은 지표면 밖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마그마 플러밍 시스템(magma plumbing system)이라고 부르는 마그마방의 수직 팽창 거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만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의 단편적인 자료로부터 백두산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꼴일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지하의 마그마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분화 능력을 가진 활동적인 화산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백두산을 폭발한다고 이야기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산분화에는 화산분출과 화산폭발이 있다. 만약 백두산에서 화산분출이 일어난다면 마그마가 조용하게 분화구를 흘러나와 용암의 형태로 주변의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가는 정도의 화산활동이 일어날 것이며, 화산폭발이 일어난다면 화산재를 뿜어내는 격렬한 화산활동이 될 것이다. 만약 백두산이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면, 현재의 지질학적 상태 및 조건, 즉 백두산 지하의 화산성 천발지진의 진앙이 천지 칼데라 내에서 2방향으로 교차하면서 밀집한다는 것, 천지 칼데라 호수 내의 20억 톤의 물이 존재한다는 점, 홀로세(Holocene)에 들어와서 주로 점성이 큰 조면암질 내지 알칼리유문암질 마그마가 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점성이 큰 마그마가 상승하는 장소는 아마도 천지 칼데라안일 것이고, 칼데라에서 지하로부터 상승하는 1,000℃ 이상의 점성이 큰 규장질 마그마

가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폭발적인 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즉 물은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 순간적으로 기화하여 수증기로 변할 것이며, 마그마는 차가운 물을 만나는 순간 급랭하여 수축하면서 산산이 조각나 화산



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수증기와 화산재의 양은 지하에서 상승하는 마그마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증기마그마분화작용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화산재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화산재 기둥이 분화구로부터 만들어져 대기 중으로 상승하다가 탁월풍을 따라 이동하다가 낙하하면 그 지역은 강하화산재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백두산의 과거 분화 이력으로 보아, 화산재 분화 말기에는 분화구 주변에

는 고온의 화쇄류가 발생하여 산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 산지에 산불이 발생하여 태우면서 황폐화시킬 것이다. 천지 칼데라 내에서는 마그마가 갑작스럽게 출현하여 물을 만나 부피가 팽창하면 쓰나미가 발생하여 물이 칼데라 외륜산을 부수거나 흘러넘칠 수도 있으며 이때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홍수가 화산체의 부서진 암석과 화산재를 동반하여 이동하면 ‘라하르’라고 부르는 토석류, 화산이류 등도 발생하여 주변지역을 매몰하면서 황폐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면 도로, 댐, 전기, 광산 등이 마비되고, 생태계의 변란, 토양 침식, 호흡기 질환, 식수의 오염 그리고 냉해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에는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여 북풍이 불어 화산재가 남쪽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는 한,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거나 1차적인 화산재해의 직접적인 재앙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화산재의 분화로 인하여 백두산 동측 북한-중국 동북부-러시아 원동지역-일본 동북지방을 통과하는 항공노선 마비와 이들 지역의 전자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은 더 말할 나위

가 없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의 경제, 산업, 사회에 심각한 도미노 현상을 파급시킬 수 있으며, 화산재의 분화량이 많을 경우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화산재들이 에어러졸 상태로 성층권에 머물면서 태양 복사를 차단하면 냉해, 기근을 포함

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화산분화 후 수년간 전 세계 곡물 작황의 악화를 초래하여 장기간 식량 수급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백두산이 화산전조 현상을 조용하게 넘기기를 마음으로 바라지만, 만약 위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화산재를 폭발적으로 분화한다면,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의 양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간접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농업, 어업 피해에 따른 농작물, 식량 피해, 항공기 운항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기업 휴지, 청소비용 담



보(clean-up cost) 증가, 향후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각종 행사취소, 호흡기 질환 증가, 식수 오염 및 수질 관련 질병, 화산재와 산성비로 인한 건물 노후화 속도 증가에 따른 직접적 손실 및 이로 인한 보험 손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 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 악화 등 많은 손해를 예상할 수 있다.

4. 마무리하면서

백두산은 약 1천 년 전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후 1403년, 1668년, 1702년, 1903년 등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진 활동적인 화산체이며, 2002년도 이후 백두산 천지칼데라 호수 내에 화산성 균발지진의 진앙이 집중하여 분포하며, 그 진원 깊이가 지하 -2 km에서 -4 km에 집중되어 있으며, GPS 관측과 수준계, 경사계를 통한 천지 주변의 지표면의 팽창이 10 cm 이상 감지되고, 화산가스에서 헬륨의 농도 증가, 화산가스의 방출로 인한 삼림의 고사, 산사태, 암석군열 등이 감지되었다. 이는 백두산이 화산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구물리 탐사 결과 천지 하부에는 4층의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진앙이 천지 호수 내에 밀집하여 분포하며, 천지 칼데라 호수내의 20억 톤의 물이 존재한다는 점, 홀로세에 들어와서 주로 점성이 큰 조면암질 내지 알칼리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볼 때, 이 경우 점성이 큰 마그마가 상승하는 장소는 아마도 천지 칼데라안일 것이고, 칼데라에서 지하로부터 상승하는 1,000℃ 이상의 점성이 큰 규장질(硅長質) 마그마가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폭발적인 수증기마그마분화작용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화산재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화쇄류를 발생시키고 백두산 주변 산지에는 홍수, 라하르, 토석류, 화산이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화산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확한 분화시기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측 자료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으며(Only God knows.), 앞으로 정밀

한 관측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

- 참고문헌

- 김정배, 구난희, 조법중, 강석화, 이종석, 이서행, 도성재, 윤성효, 현영남, 정치영, 이상훈, 장원석, 김병선(共著),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서울), p.459.
 윤성효, 2010, 백두산 대폭발의 날, 해맞이출판사(서울). p.311.

윤성효(尹成孝) 교수는 1980년 2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를 졸업(전체수석졸업 대통령상 수상)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상분지 북부의 백악기 화산암물구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3월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일본 큐슈대학, 중국 장춘지질학원, 연변사범학원 객좌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사)제주화산학연구소 이사 겸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백두산 일대의 신생대 화산활동과 화산암류의 특성 고찰(1993, 지질학회지) 등 100여 편의 연구 논문을 저술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2006, 시그마프레스), 자연재해와 방재(2007년, 시그마프레스), 제주도 지질공원(2010, 서보미디어),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백두산 대폭발의 날(2010, 해맞이출판사) 등이 있다.



A Cappella Fest

길 나 연 (JIS 11)

21명의 JIS 학생들이 2월 11일과 12일 멋진 화음으로 JIS 캠퍼스의 밤하늘을 가득 매웠다. 올해 A Cappella Fest는 과학 건물 Amphitheater에서 열렸다. JIS의 아카펠라 그룹인 Joint Sound 학생들은 그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관중들에게 맘껏 선보였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무대시설 대신, 각자의 개성있는 음색과 아름다운 하모니의 아카펠라 공연은 환상적이었다. Joint Sound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중국 민요 등을 불렀다.

아카펠라는 15세기 후반 유럽의 교회에서 발생한 음악의 한 종류이다. 아카펠라의 특징은 사람의 입이나 몸으로 만들어 낸 소리로 노래하거나, 무반주로 화음을 맞춰 부른다는 것이다. 아카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원들끼리의 호흡이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려면 다른 단원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합창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타인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skill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oint Sound 학생들의 멋진 무대가 끝나고 1999년부터 Joint Sound와 인연을 맺어온 Jamaica Cafe



아카펠라 단원들이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올랐다. Jamaica Cafe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객들은 또 다시 아카펠라 매력에 매료되었다. Jamaica Cafe는 맘마미아, I' m Yours 등의 팝송 위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를 불렀다. 입으로 베이스 기타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기를 진짜 연주하는 것처럼 생생히 그 전율이 느껴졌다. 분위기는 서서히 고조되었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안 모두가 아카펠라에 중독되어 갔다. 악기와 연주 위주의 음악에 젖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Jamaica Cafe 단원 중 한 명은 목발을 짚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는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 행복한 표정은 우리 모두를 감동의 도가니로 밀어 넣기에 충분했다.



서로의 화음으로 채우고 채워서 만들어지는 아카펠라.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만 멋진 소리를 창조해내는 것에 감탄했고 놀라웠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문화 체험 기회가 자주 없어 아쉬웠는데 A Cappella Fest 덕에 마음이 한껏 풍요로워졌다.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선정이 특히 좋았다. 후년의 A Cappella Fest를 기약해본다.



이병수와 함께하는 보험교실

안녕하세요? 이병수입니다. 지난 해 8월호 한인뉴스부터 연재를 시작하여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네요. 이제 3월호로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다루어온 생명보험 탐구는 일단락될 것 같군요. 손해보험 전문가임을 감히 자처하고 있는 저로서는 옛날옛날 보험 입문과정에서 배웠던 지식과 그 이후 이십여 년 간 직접적인 보험가입경력을 토대로 쌓아온 실무경험만을 토대로 교민 여러분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생생한 생명보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그리 수월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네요. 이제 지난 시간들을 종합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해외동포로서 우리 몸에 꼭 맞는 생명보험 가입설계를 정리해볼까요?

나와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을 설계하자!

생명보험 가입의 첫째 요소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위해 들것인가’ 라고 짚어봤지요? 이것은 ‘나’ 와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출생에서부터 성장, 교육, 결혼, 노후생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상품 설계는 가장 중요하니 함께 살펴봅시다.

☞ 유아 및 청소년 - 어린이(청소년)보험, 교육보험

교육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상품으로 유명하지요. 진학 또는 졸업 시 소정의 학자금을 필요로 할 때 들 수 있고 교육비 지급 이외에 질병, 상해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으면 일반 어린이(청소년)보험(상품명은 다양!)에 가입할 수 있지요. 즉, 어린이의 질병과 상해, 장애 등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되어 부양자인 부모가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가 교육비나 생활비를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법상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교육보험 등에서는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전액 되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네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자녀대상 보험(무배당사랑 보장보험)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27세(남자 군필 기준)까지 암(특히 백혈병이라 불리는 혈액암 등 난치성)을 포함한 질병치료비 및 상해치료비를 중점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사회초년생 - 유니버설보험

사회초년생들은 아무래도 벌이(?)가 시원치 못한 데 반해 씹씹이는 해픈 편이지요? 그래서 무작정 보험을 들었다가 매월 꼬박꼬박 내야하는 보험료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그만 손해를 보고 보험을 해약해버리는 사례가 비밀비재하지요. 저 또한 30대 중반까지는 똑 같은 시행착오를 여러 번 반복하였답니다. 친구나 친지의 강권에 못 이겨 또는 예쁜 보험설계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의반 타의반 보험을 가입하고는 몇 달을 못 버티고 해약하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고 마는... 핵심에서 다소 벗어난 듯한데... 아무튼 보험 계약자인 사회초년생의 의사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입이나 보험금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상품을 유니버설보험이라 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 큰 자녀들이 보험가입을 고민할 때 추천하면 딱 이겠지요!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반 보험상품들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지만 유니버설보험은 계약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더라도 일정기간(보통 2년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입은 적고 씹씹이는 큰 사회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 30~40대 부부 - 연금보험, 종신보험

제가 보험가입 상황에서 현재 가장 후회하고 아까운 점이 40세부터 가입하여 15년납 만기인 연금보험을 가입 8년 만에 실패시킨 사고(?)였습니다. 매월 22만 원 가량을 불입하고 15년을 채우고 나면 - 제 나이 55세지요? - 5년을 더 기다렸다가 60세부터 15년간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상품이었는데, 제가 이곳 자카르타에서 봉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군으로 전향한 먹고살기도 바쁜 시절 - 참 어려웠지요 - 깜빡 잊고 지낸 몇 개월간 그만 고국에 있는 자동이체 통장이 깡통인 채 방치되어 보험이 '실패'가 되고 말았지요. '실패'라는 용어 배우셨지요? 일정기간(보통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계약자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보장은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 그러나 해당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시 '부활'되는 상태를 말하지요.

해약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품이라 부랴부랴 보험사를 찾아가서 '부활'을 시키려고 한꺼번에 납입할 금액을 알아보니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 제조업 한담시고 가진 것 다 털어 넣고 정말 먹고살기도 빠듯하던 상황이라 - 액수였던지라 눈물을 머금고 해약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여러분의 상식적인 오해를 불식시킬 좋은 기회이군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오랫동안 보험료 내느라 고생만 하고 정작 연금을 받을 때는 용돈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푼돈수준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옛날 은행예금이자 두 단위로 주던 고금리시대에야 그럴 듯한 논리였지만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시대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답니다. 왜냐구요? 연금보험은 적지만 일정이자를 붙여 산출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의 특성상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제가 가입하고 있던 상품은 가입당시(2002년)부터 연리 7.5% 수준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이자고정형 상품이었기 때문에 해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상당한 고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에 더 이상 좋은 상품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보험사는 해약을 당한(?) 것이 천만다행인 경우였지요.

연금보험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했군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상품입니다. 즉,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계약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맞춤형에도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어 종신보험 하나만으로도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지요. 특히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서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시에는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영면에 들 때에는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속이 가능하므로 30대에는, 늦어도 40대부터는 부부가 각각 꼭 가입해둘 필요가 있는 유용한 보험임을 강조합니다!

☞ 40~50대 남녀 - CI보험 및 성인병 추가보장계약

40대에 들어서면, 특히 남성은 건강에 부쩍 신경을 쓰게 되고 또한 건강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40대 이전에는 보험상품도 저축성을 위주로 한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 많았다가 40대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각종 성인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새롭게 필요로 다가오지요.

만약 30대에 이미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보장내용을 다시 한 번 진단해보시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성인병, 암 등의 보장을 담당설계사를 통해 특약으로 추가요청을 하시면 되고 - 물론 이 때 별도의 건강진단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겠지요 - 40대에 들어서서도 아직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이 없다면 2000년대 들어 신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CI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군요.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결합시킨 형태로, 보험가입자가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상품이며, 앞서 말한 중대한 질병 외에 심장, 간장, 폐, 신장, 췌장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수술, 심각한 화상 등도 보장해준답니다.

☞ 60대 이후 노년층 - 실버보험 및 간병보험

요즘 이곳 자카르타에서도 'KBS WORLD' TV방송 등을 통해 눈길을 끄는 소위 '이순재 보험'이라는 보험광고를 보실 수 있지요? 그 보험이 바로 한국에 있는 특정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은 진사보험

과 무진사보험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무진사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보험으로서 진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지요. 또한 40대에 들어서서 위에서 소개한 CI보험과 같은 상품에 제대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고 합격(?)해야만 하니 보험료 낼 여유가 있어도 쉽게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병보장특약에 가입하고 싶어도 혈압이 140을 넘어서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품내용을 직접 본 적이 없어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실버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강진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뇌혈관질환(중풍), 당뇨병, 관절염 등 소위 노인성질환을 담보하고 추가로 장기(Long-term)질환으로 인한 간병상태에 대비한 간병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빠를수록 좋고, 보험기간은 길수록 좋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손해보험 상품인 상해보험은 나이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생명보험의 질병보장 상품은 어떨까요? 질병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 특히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 발병률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특정상품의 경우 30세와 35세 기준 보험료가 3~4만 원 정도 씩이나 차이가 나지요.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며, 여성은 45세, 남성은 40세를 기준으로 질병담보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의 보장기간 연한은 만 80세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요. 그러나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최근에는 100세 보장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별개로 보험보장기간은 최대한 길게 책정하는 것이 단연코 유리함을 강조합니다. 가령 30대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연한이 만 65세까지라면, 65세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가입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보장내용대로 상품을 설계

하기가 무척 어렵고 보험료 또한 매우 높아지겠지요. 따라서 처음 보험에 가입할 당시부터 아예 허용되는 최장연한까지 보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보장기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과 같이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장기간과 같게 할 수도, 또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당장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치 않지만 퇴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보험료 납입기간을 보장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길게 하여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은 충분히 책정하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보유, 채권 및 주식투자, 은행 예.적금 등 재테크수단은 다양합니다. 재테크를 통해 축적된 재화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상속유산으로 남기게 되지요. 생명보험은 상속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부모)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든, 천수를 누리든 상관없이 시기만 확정되지 않은 사망시점에는 가입한 보험금액, 즉 사망보험금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평소 납입하는 푼돈(?)이 언젠가는 매우 가치 있는 유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충분히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개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는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므로, 생명보험 상품을 한 구좌든 두 구좌든 총액개념으로 3억 원 정도의 책정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고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적격자일 경우 가입한도를 더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구관이 명관!

젊은 시절에는 아무래도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설계사(Life Planner,

Life Consultant 등)가 3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든 친지든 처음 보는 예쁜 아가씨든 아니면 노련한 아줌마든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의 설계사에게 생명보험 가입권유(또는 유혹)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정상적으로 가입한 보험이고 적어도 3년 이상 경과했다면 절대로 보험을 해약하지 마시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사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점에서 해약은 권하지 않지만,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절실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약할 필요도 있겠지요. 가령,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는데 보장이 훨씬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다면 보험가입 초기에는 보험을 갈아탈(?) 필요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상품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의 신상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기존 상품을 판매중단하고 더 조건이 열악한 상품을 내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구관이 명관!’ 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가급적 해약을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만약 보험가입 도중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계속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라는 약관조항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즉, 계속해서 내야 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자동대출하여 납입해주는 제도를 담당 설계사를 통해 서면신청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수명 연장! 보험료도 절약!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확률에 따라 산정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약 10퍼센트 이상, 그리고 질병보험 위주의 상품은 많게는 30퍼센트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보험료 할인을 위한 요건은 최소한 보험가입 1년 전부터 금연을 해야 합니다. 니코틴검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거짓증언(?)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당시에는 1년



이상기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질병/사망) 발생시 흡연사실이 밝혀질 경우 비흡연자로서 할인혜택을 받은 만큼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당하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 오래 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읍시다!

이상으로 어설프지만 제가 지닌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약간의 자료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 교실’의 연재를 끝마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저의 보험교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그간의 노력 이상으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명보험 연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글머리에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들르실 때 보험가입을 하시고 싶으신데 딱히 잘 아는 전문 설계사가 없다면 제가 책임지고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제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보험 전반에 대하여 교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하여 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예찬론자 중의 하나인 어느 저명한 미국작가의 말을 인용해봅니다.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을 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줍니다.”



무지개를 찾아서 - 고재천 . 강영자

고재천 목사 부부는 교민사회에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은혜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현지인 신학교에서 신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고재천牧사는 그보다 ‘무지개공부방’의 교장선생님으로 더 많이 소개된다.

그들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무지개공부방’이 문을 연지 1주년이 되었다. 2010년 초에 뜻있는 기업 대표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으로, 작으나마 2층으로 되어 있는 루프를 세내어 공부방을 꾸밀 수 있었다.

“처음엔 집에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주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 아이들이 편히 쉬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공부방 이름을 ‘무지개’라고 지은 것도 그 때문이에요.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무지개처럼, 공부방에 나오는 각각의 아이들이 장차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는 꿈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이에요. 꾸준히 공부방 운영을 지원해주시고, 다달이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시는 후원자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고, 그 분들께 감사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후원자가 계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부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인 강영자 씨는 교육일지를 꾸준히 쓰고 있다.

8월 1일 미래계획표를 쓰게 하였다. 2013년에는 나는 몇 살이고,

몇 학년이고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고, 2016년에는 2019.....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처음 미래라는 단어를 들어보는 것처럼 우왕좌왕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를!!!

9월 8일 전승철 군이(SMA) 드림에 걸려 입원하여 병문안을 다녀왔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사는데 어머니가 항상 바빠서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다.

10월 17일 ‘한국도자 천년미’전이 있어서 간다리아시티몰로 관람하러 갔다. 아이들은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 직접 도자기도 만들고, 음식 페스티벌에서 비빔밥도 먹고 선물도 하나씩 받고 몰래 도자기 체험도 하고. 자동차가 8인승이라 5학년 이상 공부방에 열심히 잘 나오는 10명만 데리고 갔다. 다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2011. 1월 15일 정은지, 이미현 영어 선생님의 인도로 KIDZANIA에서 직업체험을 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중에 미래의 소방관이 되겠다는 아이가 두 명이나 되었다. 앞으로 많은 현장학습을 통하여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부방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허가문제로 한동안 셔터를 내려야 했던 어려움, 컴퓨터가 너무 낡고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데 대한 어려움, 루프의 계약기간이 1년 남은 것에 대한 부담감 등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지만, “교육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부방에 올 때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웃지도 않던 아이들이 활발해지

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축구선수가 꿈이라고 한결같은 꿈을 말하던 아이들이 무지개색깔처럼 알록달록한 제 빛깔의 꿈을 말하기 시작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보람도 느끼구요...”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교사부족입니다. 현재 요 일별로 컴퓨터와 영어, 음악,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교사와 한글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처음 문을 열 때 부인반 한글교실과 어린이 한글교실을 운영했는데, 한글교실이 쉬게 되었고, 한국식당을 운영하시는 김혜동 집사님의 도움으로 부인반 요리교실을 열게 되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무지개공부방의 현재 재적학생은 40명 정도. 출석률은 절반이라고 한다.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며, 연령층은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다. 수업은 일주일에 다섯 번, 일요일에는 성경교실을 열고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에 쉰다.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외부행사 견학과 특별활동 형식의 초청수업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금요일은 음악수업이 있는 날. 김소은 음악선생님은 현재 UPH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바빠서 한 달에 두 번 밖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쁜 대학생 선생님이 직접 교안을 짜고 악보를 추린 노래책을 보며 피꼬리 같은 음성으로 즐겁게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다.

“공장에 불이나 집이 어려워진 한 아이가 음악 시간에 배운 <아빠 힘내세요>를 제 아빠에게 불러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아주 기분 좋아했답니다.”



알고 보면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런 사소한 얘기, 일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무지개공부방을 운영하는 고재천목사 부부

주는지, 고단함을 떨치고 웃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1년 전 개소식에서, 모 기업 대표의 축하처럼 ‘시작은 작은 공부방이지만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내의 우수한 학자와 국회의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곳 공부방에서 사람의 정을 알고, 꿈을 키운 아이라면 반드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어른들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진짜 이유이다. 바로 그것이 사소한 것의 힘,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다.

무지개공부방이 문을 연지 1년이 지났다. 그 1년 동안 아이들은 부쩍 컸고, 부쩍 밝아졌고, 자기만의 꿈을 꿀 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온기를 전해줄 따뜻한 마음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무지개다리의 가장 낮은 곳, 밑동을 고재천 목사 부부가 받쳐 들고 있다.

무지개공부방 ;
021. 596. 9450 // 0811. 841. 312



생활 속의 경제이야기

최 양 기 / 한인뉴스편집위원



돈에 대한 가치관과 머니게임 Money Game

明者處世 無尚於中
 優哉遊哉 於道相從
 首陽爲拙 柳慧爲工
 飽食安步 以仕代農
 依隱玩世 詭時不逢
 才盡身危 好名得華
 有群累生 孤貴失和
 遺餘不匱 自盡無多
 聖人之道 一龍一蛇
 形現神藏 與物變化
 隨時之宜 無有常家

현자가 되는 데는 중간에 서는 것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다
 적당하고 편안하면 저절로 도를 따르는 것이니
 수양산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모자라고, 유하혜(柳下惠)는 뛰어나다
 적당한 호흡으로 나아가며 농사짓는 일을 대신하라
 은자인 척 세상살이를 하되, 시류를 거스르지 마라
 재능을 쉽게 드러내면 몸이 위험하고 이름과 성공을 좇으면 화를 입는다
 유산을 많이 남기지 마라
 아무리 써도 혼자서 쓰기 힘들다
 성인의 도는 때로는 용이지만 때로는 뱀이 되는 것이다
 모습은 귀신처럼 감추고 드러내지 말고, 만물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그저 시류를 따르는 것이지 영원불변한 참이란 없다



윗글은 우리나라에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알려진 ‘동방삭’이 아들에게 준 계자시(誡子詩)의 일부다. ‘동방삭’은 우리나라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가상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한(漢) 무제(武帝) 때의 조정 관료다. 그는 귀신같은 처세술로 일생을 즐기며 살았다고 해서 처세의 달인으로 불린다. 환관을 매수해서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에서 고위 관직을 갖지 않으면서도 말단 중앙 관료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험난한 세상을 쉽게 헤쳐 나간다. 신출귀몰한 그의 기행이 알려진 것은 사실 그의 처세술이 기가 막힌 탓이다.

동방삭이 말하는 ‘안빈낙도(安貧樂道)’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안빈낙도란 그야말로 모든 ‘물(物)’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그런 인식을 일소(一笑)에 붙여 버린다. 그의 논지는 ‘백이’, ‘숙제’ 처럼 너무 고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영

화롭지도 말며, 그 중간에서 적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안빈낙도라는 것이다. 그래야 크게 해를 입을 일도 없고 적당히 보호받으며 그만그만한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합리적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윤리적 입장에서서는 위험한 주장이다.

동양사상사는 대개 성인의 길에 이르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유가(儒家)적 입장과, 세상을 등지고 자연과 벗하고 사는 도가(道家)적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삶은 이 중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보통사람들은 동방삭처럼 그저 적당하게 물 흐르듯 원만한 것이 최선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돈”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

‘돈’에 대해서도 그렇다. 동양에서는 부귀영화(富貴榮華)라는 말에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넘치면 모자라다거나, 부귀는 근심을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가(佛家)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한 푼이라도 더 늘리는 데 주력한다. 이율배반인 것이다. 서양 역시 다르지 않다. 서양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상인이나 고리대금업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특히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자놀이(利子)에 대해서는 배덕(背德)으로 간주했다. 시간은 신의 몫인데,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상이나 철학, 혹은 종교는 늘 ‘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그 자체가 바로 ‘돈’이나 ‘명예’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다툼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는 이유다.

‘돈’은 인간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존재임은 틀림없다. ‘돈’으로 가치를 축적함으로써 인간은 생존을 위한 가혹한 노동에서 해방이 가능했다(사회학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을 교환할 수도 있다. 심지어 돈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채테크, 혹은 자산 증식에 몰

입하는 원인이다. 노동을 통해서건, 머니게임을 통해서건 ‘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돈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머니게임”

이 부분이 고민의 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싶지만, 근면과 성실만으로 이 정도의 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돈을 두고 게임을 한다. ‘다수의 돈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 자신의 부를 빼앗기는 사람과, 획득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것이 자산 투자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 게임의 속성은 ‘다수의 돈’을 ‘소수에게 몰아준다’는 점에서, 패자가 늘 승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대인들이 돈에 대한 해방을 꿈꾸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머니게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부’를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게임이다.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게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쯤에서 동방삭의 지혜를 빌려 보자. 근면함으로 ‘돈’을 늘리는 정도 이상의 불로소득에 대한 무리한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물론 현대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인가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벌이는 ‘머니게임’이 과연 어떤 것인가는 정확히 알고 게임에 뛰어 들어야 한다. 죽어도 이유는 알고 죽어야 하는 법이니 말이다.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복조리처럼 생긴 꾸빵의 악기, 사산도



지난번에 RP5.000짜리 지폐 뒷면 켈리무투(Kelimutu)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지폐 앞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우선 돈을 살펴보면 복조리모양의 그림이 바로 ‘사산도(Sasando)’이다. RP5.000짜리 지폐양면을 글 소재로 두 번씩이나 우려먹는다는 즐거움, 글 쓰는 사람에게 글소재가 많다는 건 주머니에 용돈이 두둑한 즐거움과 같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걸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며 머리가 커져가는 느낌이 든다.

사산도(Sasando)는 동티쿠르 옆의 꾸빵(Kupang)에 있었다. 꾸빵은 사실 마음먹고 가려고 간 것이 아

니고 고래잡이마을 라마레라로 가려다가 경비행기를 놓친 바람에 할 수 없이 머물게 되었다. 우리가 묵는 호텔에 예쁜 사산도가 판매되고 있었다. 우리는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하루 머물면서 꾸빵 시내를 둘러보다가 커다랗게 세워진 사산도 동상을 만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난 그때까지도 사산도가 돈에 그려져 있는 줄도 몰랐다.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돈에 뭐가, 왜, 그려졌는지 몰라도 돈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사산도 제작하는 곳에 도착했다. 간판에 인물 사진과 사산도 그림이 있었다. 문 열고 들어서자 크고 작은 사산도가 놓여 있었다. 사진의 인물이 사산도 제작자였다. 만나 인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사산도를 연주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산도 제작자는 끈적거리는 미소로 관광객은 성의 표시만 해도 되지만 방송촬영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뭐가 있나, 이리저리 살펴다보니 현금통처럼 생긴 작은 껍질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그 통이 관광객들이 성의표시를 하는 통인 것 같았다.



얼마의 금액에 사산도 제작자와 우리는 합의를 보고 촬영은 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나오더니 사산도 제작자에게 사투리로 뭐라, 하면서 까칠하게 화를 냈다. 예술인(사산도 제작자)은 머뭇거리듯 약간 더듬듯, 몇 마디 대꾸 정도 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나에게 와서 “우린 그 금액으로는 사산도 연주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카메라 촬영하는 걸 스톱 시켰다.

우리 제작진들은 모여 들었다. 그 젊은이는 예술인 아들이었다. “사산도는 특허 낸 작품이기에 아버지만 제작, 연주할 수 있는데 카메라에 담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 돈은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아들은 약간 빠기듯이 “우리는 외국방송에 여러 번 출연도 했고.....” 요구하는 금액은 아버지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두 배나 되었다.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 수없이 젊은이와 재상의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값어치를 매겼다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다. 예술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예술인의 노동력은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을 창조하는 연주와 악기를 중간에 놓고 소시장의 송아지 값을 흥정하듯이 거래가 오갔다. 결국 일치점을 찾았고 촬영이 시작되었다.

사산도는 하프, 피아노, 기타 세 악기의 소리를 조합하여 생산한 전통악기다. 현대음악도 전통음악도 다 소화해 내는 악기다. 사산도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대나무로 만들어

진 몸체에 가느다란 32개의 줄이 있고 3단계 음으로 되어 있다. 몸체를 가려주는 이파리가 병풍처럼 펼치면 은은하게 소리를 모아주고 이파리를 접어주면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다. 그저 피고 지고 바람에 날려 길바닥에 뒹구는 나뭇잎일 뿐인데, 음색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 참으로 쓰임 받는 나뭇잎이었다.

꾸빡을 떠나오던 날 아침, 무심코 TV 채널 돌리다가 어제 그 부자가 사산도를 연주하는 모습을 봤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하려다가 사산도 동상도 보았다. 아들이 그렇게 빠길 만도 했구나. 유명해서 돈에 그려진 것인지 돈에 그려져서 유명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산도는 꾸빡이 낳은 예술작품이었다.



자동차 기름 값 빼면 절벽으로 차를 몰겠다!

플로레스섬의 한 시골마을에서 촬영할 때의 일이다. 원래 내가 계획한 스케줄대로라면 그날 촬영은 정오에 끝나서야 했다. 그런데 집들이에 수십 마리 돼지 잡는 걸 촬영하다보니 그만 어스름한 저녁이 돼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집들이에 왔던 모든 손님들에게 밥과 술을 대접했고 운전기사가 그걸 먹었던 모양이다. 앞좌석에 앉은 카메라감독이 운전기사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듯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어둑어둑해진 산길로 접어들어 섰다가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앞으로 약 5시간 정도 가야한다. 하필

산골 마을에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게 뉘람, 운전기사는 길가에 파는 기름 몇 병을 사다 넣으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기름 값을 피디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사용한 렌트 비용을 오늘 밤에 호텔에 가서 모두 계산해 줄 거라고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처럼 빌려 준 기름 값을 계산에서 빼겠다고 말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오지로 가면 갈수록 차가 귀하고 기름 값 포함해서 렌트비를 엄청 비싸게 부른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도로는 생각보다 울퉁불퉁 많이 어설프다. 그런데 앞에서 운전기사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기사의 말은 렌트 비에서 기름 값을 빼면 자신은 엄청 손해라면서 화를 냈다. 맨 뒤에 앉은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원래 렌트 비용이 이렇고 첫날 기름 넣을 때 함께 있던 현지 가이드가 말하길, ‘운전기사가 지금 돈이 없으니 기름 값을 우선 빌려주고 나중에 계산에서 빼자’ 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하고 소리 높여 말했다. “내가 돈이 없긴 왜 없어, 집이 두 채고 자동차가 두 대인데.....” 그러면서 이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오버타임이 계산되어도 기름 값까지 빼면 나는 손해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줄줄 이어지는 단어들은.....

어제도 좀 늦었다고 하루를 더 계산해달라고 우기는 바람에 기가 막혔다. 불행인 것은 현지 가이드가 없어 더 문제였고 산골이라서 당장 이동에 불편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 줬는데 재미를 느꼈는지 또 우겼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면 제멋대로인 오지법을 따르란 말인가.

갑자기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속도가 빨라졌다. 도로가 어설프는 것도 한몫했지만 운전기사는 우리들 겹주려고 꼬불꼬불한 길을 거칠게 운전했다. 계속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앞에 앉은 카메라감독이 “선생님, 이 사람 운전이 너무 난폭하게 해서 무섭고 멀미가 나려고 해요.” 손님들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운전기사의 혼잣말은 이어졌다. “렌트 비용에서 만약에 기름 값 빼면 내가 차를 절벽으로 몰겠다.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리저리 꼭애운전하다가 끼익~ 급정거까지 했다. 그런 소리를 굵이 돌 때마다 지절었다. 자동차는 금방이라도 절벽으로 광,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 인터넷으로 보았던 비슷한 사건사고들이 스크린처럼 계속 지나갔다. 급기야 제작진 남자 셋은



어지러워 멀미가 나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 난리가 났다. 피디가 ‘스톱’ 이라고 서너 번 소리치면서 무조건 세워달라고 말했다. 차는 불빛이 있는 마을 입구에 정지했다. 차에서 내린 피디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말했다. “난 폭한 운전기사에게 지금까지 비용 계산하고 여기서 내리겠다고 하면 안 될까요?” 오지로 다녀본 경험이 없는 피디의 제의였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걸 뱉어내듯이 숨을 내몰아 쉬면서 되물었다. “아니 밤중에 더군다나 이 산골에서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기사가 하는 짓이 너무 괴씸하잖아요.” “그건 한국방식이구요, 만약에 그랬다가 눈먼 돼지처럼 행동하는 저 기사가 ‘그래 좋다. 해보자.’ 하고 짐이라도 덜컥 내려놓으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밤중에 이 산골에서?” “그렇게 말하면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까 같은 경우 나는 ‘절벽으로 가보자’ 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고자하는 호텔까지만 무사히 가도록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런가요???”

제작진들은 금방 인도네시아로 와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십여 년 전부터 와서 살았지만 이런 일이 이해 안 되기는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지로 다니다 보면 말라리아 보다 더 무서운(?) 일을 여러 번 겪었다고 경험담을 알려줬다. 차 안에서 우리 네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 버리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멧쩍었던지 운전기사의 독살 섞인 푸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나와 호텔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름만 ‘호텔’ 이지 너무 어설프다. 매트리스도 그렇고, 방안의 곰팡이 냄새가 폴폴 날아다니는 허름한 곳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수렁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라서 그런지 침대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방안의 곰팡이 냄새가 땀땀(Tempeh) 냄새보다 더 구수하고 좋았다.■■■■

이혼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천부인권이다. 이 두 권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이 결혼 행복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침해자는 다름 아닌 남편 혹은 아내 자신들이다. 민법 혹은 혼인법은 가정을 보호하고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내용상으로 절차상으로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가정이 이혼으로 계속 깨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정신세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옛날과 다르게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남편의 불륜이나 성격 차이를 참지 않고 쉽게 이혼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혼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한 결혼생활이라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참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로 생각하는 추세이다. 이혼에 불가피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면을 설명한다.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하는 방법이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혼에 합의하여 이뤄지는 이혼을 뜻하며,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이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합의 이혼을 법에서는 협의 이혼이라고 부르고 있다.

2. 협의이혼의 의의

이혼을 하는 이유 혹은 원인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부부 간에 성격이 일치하지 않거나, 애정이 상실되었거나, 권태를 느끼거나, 불화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상대의 불륜을 용서할 수 없거나, 시집 식구 혹은 처가 식구와 맞지 않거나 등등 어떠한 이유, 사유 혹은 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부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이혼이 가능하다.

3. 협의이혼 절차

3.1. 구비 서류

3.1.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3.1.2. 호적등본 1통

3.1.3. 이혼신고서 3통

3.1.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시에만 필요)

3.2. 신청자

반드시 협의이혼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금한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신청해도 되고 어느 한 쪽이 일방으로 신청해도 무방하다.

3.3. 신청지 / 관할법원

국내 거주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하며, 당사자 쌍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다.

3.4. 협의이혼 의사에 대한 판사 확인서

3.4.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가정 법원

의 판사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반드시 동시에 불러 두 사람에게 동시에 “두분은 이혼하기로 합의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 당사자 쌍방이 “네” 하고 대답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기로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서로 이미 합의한 대로 “아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혹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판사의 확인 절차는 쉽게 끝난다.

3.4.2. 그러나, 판사가 질문할 때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강압이나 거짓이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판사 앞에 나온 배우자는 판사 앞에서 이혼 반대 의사를 밝히면 판사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게 되며, 따라서 협의 이혼은 불가능해진다. 아이를 누가 키우기로 했는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3.4.3. 판사에 의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혼 확인서 3통을 작성하여 1부는 법원에 보존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한다. 확인서 등본의 좌측 중간 여백에 보면 “확인 일시 년 월 일, 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오니 신고 의사가 있으면 기간 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3.5. 이혼 신고



이혼의 당사자인 남편과 부인은 당사자 가정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3.5.1.** 이혼 신고서 1통(당사자 쌍방 및 증인 2명 연서)
- 3.5.2.** 가정 법원 발급 협의 이혼 확인서 등본
- 3.5.3.** 남자의 호적등본 1통
- 3.5.4.** 여자의 복적할 가(친정)의 호적 등본 1통(복적할가가 없을 때는 제적등본 1통)

3.6. 재외국민의 협의이혼 절차

3.6.1. 당사자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가 한국 가정법원 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6.1.1. 호적 등본 1통과 당사자 쌍방이 기명 날인한 이혼 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대사관 영사과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다.

3.6.1.2. 위의 신청을 접수한 영사과는 당사자 쌍방을 반드시 동시에 영사과에 출석시켜 협의 이혼 의사 여부, 미성년자 존재 여부, 친권 행사자 지정 여부 및 양육자 지정 여부, 재산분배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를 확인 후에, 담당 영사는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이 진술 요지서를 위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 가정 법원장에게 송부한다.

3.6.1.3. 위 신청서를 송부 받은 서울 가정 법원장은 당사자 쌍방을 법원에 부르지 않고 이 신청 서류와 영사가 작성한 진술 요지서만 보고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이혼 확인서 등본 2통을 함께 간인하여 즉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에게 송부한다. 이혼 확인서 등본 및 이혼 신고서를 송부 받은 영사는 1통을 남편에게 1통은 부인에게 교부해 준다.

3.6.1.4. 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은 당사자는 영사과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혼 신고 서류를 수리한 영사과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6.2. 남편 혹은 부인 한 사람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6.2.1.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호적등본,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및 이혼 신고서를 서명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부한다. 서류 상에

국내 거주 배우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6.2.2.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상기 서류들을 주거 주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킨다.

3.6.2.3. 담당 영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를 면접하여, 상술한 사항들이 확인되면,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모든 서류를 서울 가정 법원에 송부한다.

3.6.2.4. 상기 서류들을 송부받은 서울 가정법원은 국내 배우자를 소환하여 및 상기 상술한 사항들을 확인한 다음, 이혼 확인서 등본 1통은 국내 배우자에게 교부해 주고, 이혼 확인서 등본 1통은 이혼 신고서와 함께 상대 배우자 거주국 한국 대사관으로 송부 한다.

3.6.2.5. 이혼확인서 및 이혼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사관은 이를 거주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교부해준다.

3.6.2.7.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는 대사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의무와 권리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이 있다.

4.1.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4.1.1.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

4.1.2. 자녀의 거소 지정권

4.1.3.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리

4.1.4.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 허락권

4.1.5.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게 대한 자녀 인도 청구권

4.1.6. 자녀의 특별한 행위(인지청구의 소 제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대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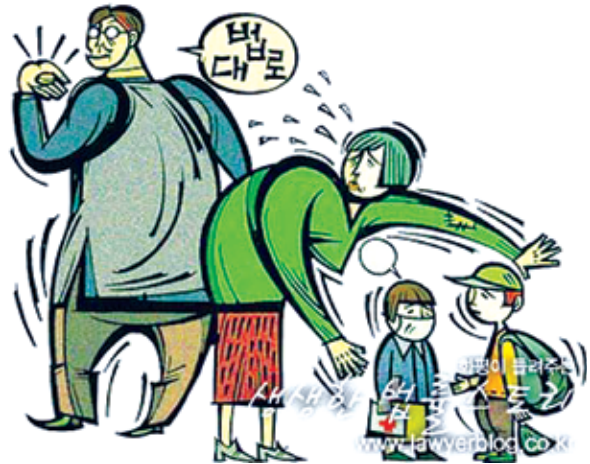
4.1.7. 자녀의 특별한 행위(분가 등)에 대한 동의권 등

4.2.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4.2.1.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4.2.2.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4.2.3.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



5.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다른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로써 친권 중에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 자녀의 거소를 지정하는 권리,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게 자녀 인도를 청구할 권리 등이 양육권에 속한다. 자녀를 데리고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운동시키고,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진학시키고, 여행시키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수술여부 결정 등 자녀를 실질적으로 데리고 사는 권리가 양육권이다.

6.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권 행사자가 되고, 친권 행사자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i). 자녀가 아직 유아이거나, ii). 자녀가 친권을 행사할 부모와 불화하여 친권 행사 부모와 동거를 원치 않을 경우, iii). 친척 등 제3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iv).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는 것이 자녀에게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 행사자를 분리하여 지정될 수 있다. 이혼하는 부모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하여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 행사자 되려고 싸우는 경우에, 한쪽은 친권 행사자로, 다른 한 쪽은 양육권 행사자로 타협을 볼 수도 있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 행사자가 분리되면, 친권의 범위는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국한되며,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양육권이 친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면 남편은 자녀의 친권 행사자가 되고 부인은 자녀

의 양육권 행사자로 지정된 경우에, 남편은 자녀가 외국에서 살기를 원하나, 부인은 자녀가 한국에 살기를 원하여, 서로 의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자녀의 거주지에 대한 권리는 양육권 행사자에게 있으므로, 그 결정권은 부인에게 있다. 부인은 친권행사자인 전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가서 양육할 수 있다.

7. 자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에 대하여 친권행사자 혹은 양육권 행사자가 아닌 부모의 한쪽이 자기 자녀와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면접교섭권은 동거, 면회, 방문, 데려가기, 전화통화 및 편지교환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I). 자녀의 방학 기간 중에 혹은 부모 한 쪽의 휴가 중에 매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몇 일 동안 어디에서 자녀와 동거할 수 있다, ii). 매월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면회할 수 있다, iii). 매월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자녀를 방문할 수 있다, iv). 매년 추석에 집으로 데려가서 성묘를 갈 수 있다, V). 매주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vi). 매월 1회의 범위 내에서 편지를 교환할 수 있다 등이다.

8.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은 i). 협의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ii).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iii)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부부 공유 재산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8.1. 재산분할 비율

법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나와 있지 않으며, 상호 합의가 되지 않고 법정으로 번지면 재산분할 비율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무상에 나타나는 비율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육아,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정관리 개념에서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정관리 없이는 남편의 재산형성이 어렵다는 법리이다. 부인이 순수한 가정관리에 그치지 않고 부업을 했거나 친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50%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순수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1/3로 인정하고 전체 재산의 1/3을 이혼하는 전업 주부에게 분할하라는 예가 많다.

8.2. 재산분할 방법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에서 재판하는 경우 실무상 일시불로 청구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다.

9. 위자료 청구

위자료라는 의미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혼 위자료라고 부르고 있다. 한 쪽 배우자의 불법행위 혹은 유책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인 중 부정행위(간통), 폭행, 학대, 유기,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거나, 이혼 후에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의 생활에 대한 불안, 자녀와의 이별로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경우에, 이혼 유책 혹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9.1.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상대 배우자의 행위 입증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상대배우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상대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제 어디서 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

9.2. 위자료 산정 기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다. 재판부는 과탄원인(불륜, 폭행, 학대, 모욕, 유기 등), 유책 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과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상과 위자료 청구를 당한 배우자의 재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 상황 등을 보며, 청구자가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참작하여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위자료 액수 결정은 100% 재판부의 직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9.3. 위자료 청구 시효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과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는 위자료 청구 시효는 3년이며, 부부의 법정 의무사항인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에 위반한 때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이 되어, 위자료 청구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9.4.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인 고통을 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득실을 잘 가려야 할 것이다.

10.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 청구의 관계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 청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이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달라는 문제이며,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으니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혼인 과탄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당한 배우자일지라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11.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외국 영토 내에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폭행을 한 경우에는 한국 여권 소지자일지라도 현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으며,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의 형량에 1/3를 더 추가한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11.1. 일반폭행 시 : 징역 최장 3년 6개월

11.2. 일반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 징역 최장 6년 8개월

11.3. 일반폭행으로 사망 시 : 징역 최장 9년 4개월

11.4. 사전계획 폭행 시 : 징역 최장 5년 4개월

11.5. 사전계획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 징역 최장 9년 4개월

11.6. 사전계획 폭행으로 사망 시 : 징역 최장 12년

11.7. 고의로 중상 폭행 시 : 징역 최장 10년 8개월

11.8. 고의 중상폭행으로 사망 시 : 징역 최장 13년 4개월

11.9. 사전계획 중상 폭행 시 : 징역 최장 15년

11.10. 사전 계획 중상 폭행으로 사망시 : 징역 최장 15년

12.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

간통죄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경찰에 고발해야만 국가의 수사권이 발생하는 친고죄에 속하며(피해자의 고발이 없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 유죄가 인정되면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인도네시아 형법 상 간통죄는 징역 최장 9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간의 이불 속 일은 국가가 간혹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통을 형법사의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소송 청구가 간혹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계속 기각이 되었으나 간통이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는 위헌 판결이 나올 날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은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책임이나 민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안 선 근(박사)

이슬람 문화의 이해

한국 이슬람의 역사

The History Of Islam in Korea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거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벗이 될 만한 사랑과 평화의 사도를 발견하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비통한 전쟁과 억압의 역사를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기도 한다. 인류 문화사의 심층에는 반드시 종교라는 씨앗이 배태되어 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저변에는 유불선 3교를 비롯한 인도의 힌두 사상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세계 종교의 사상적 뿌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종교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의 한반도와 이슬람의 관계

The First Advent of Islam in Korea

아랍 무슬림이 한반도와 접촉한 최초의 시기는 기록상 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슬람이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7세기 중엽부터 이미 아랍 - 페르시아 계 무슬림들이 중국대륙과 접촉해 왔고, 그들의 활동영역이 9세기경에는 남방해로를 통해 통일신라 시대의 한반도에 까지 확장되었다.

이슬람이 세계로 확산되는 시기는 7세기 중엽이며, 해상을 통해 인도네시아에는 7세기 중엽이라는 Hamka 유명 이슬람 학자의 주장과 11세기 초라고 논증을 하는 화란계 학자도 있으나, 정작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래된 것은 모두 7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이슬람을 연구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통학자 Ihksan Taggok 이슬람문화사 및 인류학 교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아랍으로부터 전래되지 않고 중국의 실크로드의 문명을 통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통해 전래되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는 수마트라의 팔렘방의 어원 또는 말랑의 Chengho 중국계 이슬람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시기에 이슬람의 영향을 시사해 주는 구체적인 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상인들의 교역상품이나 이슬람 세계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측되는 물품들이 신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랍 무슬림들의 직접적인 방한이나 또는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한반도와 이슬람 세계간의 문화적인 접촉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쉐지스 대학의 가중수 교수는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지식묘 사회’ 라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한

인회 열린강좌의 문화강의를 통해 한국의 이슬람 전래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흥덕왕 9년 이전까지 아랍계 상인들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적지 않은 무역 문물교환을 했다는 증거로 오늘날 평택에 있는 덕수장씨의 성이 아랍계의 후손이라는 점, 경주설씨 및 설총의 일화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랍의 후인으로 벼슬까지 올랐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아랍인 비슷한 형상의 비석이 경주 괴릉 뒤쪽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중수 교수는 한국과 페르시아 교류 문화의 연구를 한 하나의 논문, ‘이슬람의 역사문화’에서 “이란의 젊은이들이 통일신라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즉 우리 한반도에 정착한 페르시아인들이 한국의 산수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반하여 우리 한국에 오래 정착 또는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걱정했던 사료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11세기 초인 고려시대에 ‘대식’으로 알려진 이슬람 제국의 아랍 상인들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와서 간헐적으로 고려조정과 교역을 시도했다. 이어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여말선초인 13-14세기이다. 당시 몽골제국의 간섭 하에 있던 고려조정에는 몽골의 관리들뿐 아니라, 몽골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던 중앙아시아 계의 무슬림들이 대거 진출했는데, 이들은 고려사에 ‘회회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투르크계의 위구르 무슬림들이었다. 그들은 고려에 정착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민족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사회에 이슬람문화를 이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공동체 내에는 이슬람 성원이 있었으며 그들 특유의 고유한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언어인 위구르어를 사용하는 등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러한 이슬람적 특성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념으로 출발한 조선 초기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세종 제위기에는 궁중의 공식행사에 무슬림대표나 종교지도자들이 초청되어 꾸란을 낭송하며 임금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들 무슬림들이 이시기에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끼친 이슬람 문화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 중 이슬람 역법이나 도

자기 기술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조선초기의 다양한 과학기기의 발명과 과학서적의 편찬에도 이슬람 문화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이슬람 영향력은 15세기 중엽 이후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는 조선왕조의 새로운 건국이념인 유교사상의 유포와 부흥으로 이질문화가 배척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20세기 초, 개화의 물결로 인한 문호개방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일단의 무슬림들이 다시 한반도에 이주해 정착한 시기는 1920년대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련 치하의 소수민족으로 살던 투르크계 무슬림들로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 삶의 터전을 잃고 만주를 거쳐, 당시 일제치하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 망명해 온 무슬림들이었다. 약 2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주로 상업과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획득했으며, 서울시내 요지에 그들의 민족학교와 이슬람 성원을 건립했다. 또한 그들은 꾸란을 출판/배포하고 서



울근교에 이슬람묘지를 확보하는 등, 근대 한국이슬람의 태동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들은 1945년 한반도의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급변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대부분 해외로 이주해 갔다. 그러나 약 30년간 그들이 한반도에 심어 놓은 이슬람의 씨앗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그들의 동족인 또 다른 터키인 무슬림들에 의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시 발아되었다.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DO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



Tetaplah tersenyum 웃어라 동해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평소 착한 행동을 많이 해 평판이 좋은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일반 사람보다 더 비난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 평소 영웅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보통사람이 남의 돈을 각각 훔쳤을 때 사람들은 영웅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잘못을 더 많이 기억했고 비난도 더 혹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더 쉽게 인정하고 비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이미지가 영웅에 가까울수록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적자생존’,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기존의 뜻에 ‘적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지 이 단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대로 살려면 우리가 노력하는 착하게 살기가 힘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상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수들을 보고 열광합니다. 목적 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어떠한 사건으로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거품이 터지면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평소 신뢰를 받던 사람이 더 비난 받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김인혜 서울대 교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허상과 가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짜들이 언론과 방송에 오르내립니다. 가짜가 많아지는 것은 대중들이 그만큼 스타를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멋진 것, 화려한 것에만 치중하지 않기를 빕니다. 남들이 환호하는 것에 덩달아 휩쓸려 정말 귀한 것을 잃고 살거나 사람의 진면목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심을 먼저 알아주는 것, 허상이 아닌 진짜에게 따뜻한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사고가 하루 빨리 자리 잡길 바라면서.....

새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없는 본인의 상황을 좀 더 멋지게 포장하고 싶어서 동해 대신 도진을 선택합니다. 허상으로 보이는 가짜를 최선인 줄 알고 선택한 세화는 동해와 도진 사이에 얽힌 복잡한 가족사로 마음고생하며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점점 악해집니다. 동해와 도진이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새와는 두 사람이 이복형제임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동해와 안나를 괴롭힙니다. 결국 자신의 시어버지이자 동해 어머니의 첫사랑인 김준이 이 사실을 알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Jika dia mengingat pukulan yang diterima ibu dan Dojin, ayah takkan sembarangan bicara.

아버님도 어머니랑도 진씨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씀하지 못하실 거야.



Pukulan의 어근은 ‘pukul’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타 또는 치다/시, 시각입니다.

우리말도 어떠한 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아 “한 대 얻어맞은 거 같아”라고 표현하듯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무언가 크게 놀랐다는 표현으로 Pukulan 외에도 ‘guncangan/Kejutan’ 등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Pukulan : 충격이나 고통을 주는 어떠한 것에 당한 것.
(Sesuatu yang datang dengan keras/kencang, dan biasanya menyakitkan.)

물체에 의한 충격을 표현하나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도 표현함. “Terpukul”

예) Dia merasa terpukul saat mendengar ayahnya mengalami kecelakaan.

그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대 얻 어맞은(충격을 받음) 듯 했다.

Guncangan : 파괴력을 갖은 충격 빠르고 강한 흔들림이 나 움직임.

예) Dunia perekonomian kita sedang mengalami guncangan yang hebat. 세계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Kejutan : 예견하지 못했던 어떠한 일이 급작스럽게 나타남 과 놀랄만한 일이 발생한 현상 (Hal yang menimbulkan kekagetan dan muncul secara tiba-tiba. Tidak diduga sebelumnya).

예) Rosa merasa kaget sekaligus senang saat teman-temannya mengadakan pesta ulang tahun kejutan untuknya. 친구들이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줘 로사는 놀라고 기뻐다.

Sembarangan : 어근은 ‘Sembarang’ 으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임의대로, 마구잡이로(생각 없이) 라는 뜻을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 중 하나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Jangan sembarangan 생각 없이 규정을 무시하는 무차별적인 행동으로, “함부로 하지 마.”

Jangan macam-macam 이상한 행동(이것저것 내키는 대로 행동 할 때 “이상한 행동 하지 마.”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유사한 뜻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Sembarangan : 무차별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Tidak memilih-milih, melakukan sesuatu tanpa peduli aturan).

예) Jangan bicara sembarangan di depan umum. 대중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

Asal-asalan : (앞으로의)결과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 아무거나 있는 데로 (Melakukan sesuatu tanpa peduli dengan hasilnya).

예) Karena terburu-buru, Lala memakai baju asal-asalan.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아무(아무거나 닥치는 데로) 옷 이나 입었다.

Ceroboh : 사전에 고민해 보지 않고 조심성 없이 행동 할 때 / 경거망동 (Melakukan sesuatu tidak berhati-hati dan tanpa memikirkannya terlebih dahulu).

예) Karena mengendara dengan ceroboh, Beni terlibat kecelakaan mobil.

버니는 조심성 없이 운전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Gegabah : Ceroboh와 유사하며, 너무 서둘러 생각할 겨를 없이 행동하는 것 (Melakukan sesuatu dengan terburu-buru tanpa memikirkannya dulu. Mirip dengan “ceroboh”).

예) Dia selalu membuat keputusan dengan gegabah. 그는 항상 급하게 결정내린다.

Seenaknya :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Melakukan sesuatu sesuai dengan kemauan sendiri tanpa memikirkan orang lain).

예) Dia membuat banyak orang kesal karena telah menyerobotan trian dengan seenaknya.

그는 마음대로 새치기해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얼받게) 만들었다.

‘Serobot’ 은 (훔치거나 약탈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좋아함을 나타내 한국의 새치기란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Sembrono : 조심성 없이 행동함을 나타내며 “Ceroboh” 와 유사합니다(Mirip dengan “ceroboh” . Melakukan sesuatu tanpa berhati-hati).

예) Obat ini tidak boleh diminum secara sembrono. 이 약은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된다.

Macam-macam : 여러 가지 일/ 이상한 일들 (Berbagai hal. Hal-hal yang aneh).

예) Karena tak dipedulikan oleh teman-temannya, Wendy jadi berpikiran macam-macam.

친구들이 외면하자 윈디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상한 생각).



플라시보 효과

박관규 / 자카르타 안디옥외 목사

우리는 옛날에 아파 울던 아이들이 할머니의 손길에 의해 울음을 그치고 다 나은 듯이 뛰어다니곤 했던 보습들을 기억한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배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고, 때론 상처 난 부위에 침을 찍어 발라주곤 하셨는데 아이는 어느새 잠잠해지고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진 모습을 신기하게 보아왔던 것이다. 정말 할머니의 손에 약효가 있었던 것일까?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약을 먹고 병이 씻은듯이 나았다고 신나서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아무 약효가 없는 가짜약이었다. 어찌 된 일인가?

옛날 시애틀의 심장외과 의사였던 레너드 콕은 내유동맥을 묶는 당시의 협심증 수술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 그는 엉뚱한 방식으로 그 효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느 환자에게는 실제 그 수술을 했고 다른 환자에게는 수술을 하는 척만 했다. 그런데 양쪽 환자 모두 가슴통증이 사라졌고 심전도상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1993년, 정형외과 의사인 J B 모즐리는 무릎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관절경수술에 의문이 갔다. 관절경수술이란 무릎을 절개하여 관절경을 삽입한 후 문제 있는 연골을 제거하고 연 조직을 치료한 후 염

수로 무릎내부를 세척하는 외과수술이다. 모즐리는 환자를 세 부류로 나누어 시험을 했다. 첫 번째는 교과서대로 일반 수술을 했다. 두 번째는 관절경을 삽입하여 똑같은 시술을 했지만 연골은 그대로 두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은 시간에 마취도 하고 절개도 했지만 관절경은 삽입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수술하는 시늉만 하고 표피에 흔적만 남긴 것이다. 그런데 수술 2년 후 행해진 검사에서 세 부류 모두 무릎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술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나 시늉만 했던 다른 사람이나 세 부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2002년 7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권두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어떻게 외과시술에서조차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투약이나 시술에 있어서 그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환자의 믿음만으로 상태가 좋아지고 치유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 (Placebo Effect) 라고 한다. 플라시보란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만족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다,

이 말은 14세기 돈을 받고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대곡꾼을 지칭하는 데 사용 되어졌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처음 의학문헌에 실린 것은 1794년이다. 게르비 라는 이탈리아인 의사가 치통환자의

치아에 어떤 별레의 분비물을 약이라 하여 발라주었더니 1년간이나 치통이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이후 게르비는 그 별레의 분비물로 수백 명의 치통환자를 치료하면서 임상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게르비와 그의 환자들이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권위있는 주체라면 더욱)의 암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때문에 이 플라시보 현상은 비단 치료의 분야를 넘어 그 암시의 패턴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플라시보 효과 현상은 몇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첫째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의 윤리적 문제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원천적으로 거짓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 거짓을 믿음으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냥 편안히 누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쁘다고 금지해야 하나? 둘째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과대 선전이나 바가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과대 선전할수록 그것을 믿는 데서 오는 플라시보 효과는 커지고, 가격이 싼 제품보다는 비싼 것이 효과가 좋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익만 있다면 사기에도 값을 치러야 옳단 말인가? 예라~ 골치 아프다! 그건 당국자들이 알아서 하그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첫째 거짓사실

에 대한 믿음 조차도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다면 참된 사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그 효과가 얼마나 크고 유익할까 하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라시는 예수님과 “네 믿음대로 되라” 는 성경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이 플라시보 효과를 선용하여 사람들을 낫게 하고 희망을 주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보여주는 호의와 정성만으로도 병세가 상당히 호전된다고 한다. 간호사가 정성스레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그 정도의 역할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현대를 일컬어 무관심과 침몰이 지배하는 시대라 한다. 우리 자카르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바쁘고 각박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또 여러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겨워 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과 생활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서로에게 “곧 나올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머잖아 좋은 날 올 겁니다!” “힘 내세요!” 라고 말하면 좋은 의미의 플라시보 효과가 전달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선사하므로 우리 자카르타 사회를 한결 희망차고 밝은 사회로 가꾸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차례는 김정일 독재정권

김영수 / 서강대 교수

이집트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이 날로 뜨겁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에 이어 북아프리카 중주국인 이집트에도 개혁의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 30년 무라바크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은 독재척결을 넘어 아랍문화의 새로운 혁명을 예고할 정도로 거세다.

중동전쟁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무라바크는 북한을 네 차례나 방문,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다. 방문 후부터 아들 가말을 후계자로 세우는 준비를 하는 등 사람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집트 집권당(국민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가말은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란 얘기가 나돌았던 인물이다. 무라바크가 북한 후계과정을 벤치마킹한 결과였다.

김일성을 만나고 난 뒤 북한 흉내를 내려다 나라를 망친 독재자로는 무라바크 외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짐바브웨의 무가베가 있다. 장기독재에 이어 권력세습을 시도하다 비참하게 사라진 인물들이다. 모두다 민심을 거스르고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줄 무리수를 두다 권좌에서 굴러 떨어진 경우다.

그럼 다음 차례는 김정일 정권인가? 김정일 정권도 차우세스쿠, 무라바크, 무가베 못지않게 장기독재, 권력세습, 경제난 등 정권 몰락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은 김정일 차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라바크 키파야 바르라” (충분하니 퇴진하라)에 이어 김정일 퇴진의 목소리도 곧 북한 땅에서 들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감을 잡은 탓인지 북한 독재정권은 이집트 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에 아프리카에 불고 있는 변화의 새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폐쇄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바깥 소식이 이곳저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사이버 네트워크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북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

소문인 유비통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변화의 싹이 개화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예전보다는 약해졌어도 아직은 막강하다. 민심을 부추길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부족하다. 그만큼 북한체제는 정변의 조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북한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 수 있을까. 문제는 간단하다. 폐쇄체제를 약화시키면 된다. 바깥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는 폐쇄성을 약화시키면 된다. 이것이 북한변화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며 체제변환을 견인하는 지렛대다.

새로운 소식을 북한사회에 주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눈 뜨도록 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의식화되기 시작하면 민심이 형성되고, 만들어진 민심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권은 공포 조장과 통제로 버티려 하지만 결국은 민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동구권 붕괴를 초래한 변화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현재 북아프리카에 일고 있는 변화의 정석이다.

전단지(빠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태도가 바로 북한변화 가능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예전보다 달라진 북한사회는 새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다. 최신 상품과 유행에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뭇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던 당국 얘기를 흘려들은 지 오래다.

‘다음 차례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북한변화의 충분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기다리면 안 된다. 이제 새 소식을 제대로 들여보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민주화의 첫 걸음이다. ●●



이집트를 보면서 북한의 민주화 봉기를 꿈꾼다

김 태 진 /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대표
* 56년생, '01.6 탈북, 제15호 요덕정치범수용소 출신

최근 국내외 TV·신문 등 언론의 관심은 온통 이집트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활동 상황 보도에 집중되고 있다.

“도둑놈 무바라크는 물러가라” 고 외치는 시위대들과 그들을 저지하는 이집트 군과 경찰을 보면서, 무바라크보다 더 부패하고 악질적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북녘 땅의 내 동포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 한편으론 언젠가는 내 형제, 내 동포들이 일어나 “도둑놈 김정일, 김정은은 물러가라” 고 외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교차한다. 무엇보다 “도둑놈 무바라크는 물러가라” 고 외치는 시위대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더 크다.

부모와 처자식도 남겨 두고 홀로 북한을 나온 지 20년, 중국에서 잡혀 강제송환된 후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로 정치범이 되어 북한 정치범수용소 중 하나인 제 15호 관리소(함경남도 요덕 위치)에서 들어간 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북한을 보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그들은 노동당에서 내놓는 거짓과 선전에 속으며 살고 있고, 흑여 조급이라도 진실을 아는 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이집트 무바라크와 다르다. 북한의 상황과 이집트의 상황 또한 다르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가 외치는 “도둑놈 무바라크” 를 보면서 나는 무릎을 쳤다. 빈곤과 실업에 허덕이는 이집트 시민들은 지도자와 그 측근들의 사치생활에 화가 났구나!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과 그 추종 세력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턱이 없다.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다. 아니, 그들은 철저히 속고 산다. 텔레비전 라고는 조선중앙방송 하나뿐이며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는 라디오만이 존재하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북한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배가 고파 죽기 살기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들을 통해 외부 정보가 흘러들어 가고 있고 TV·라디오를 통해 몰래 한국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진실에 눈을 뜨고 있다. 이제 곧 김정일이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감히 누가 “도둑놈 김정일은 물러가라” 고 외칠 수 있을

까? 저 땅에 무시무시한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누구도 수령독재체제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가 없다. 그 곳이 어떤 곳인가? 옥수수죽 200g과 소금물을 한 끼 식사로 먹으며 하루 풀베기 800kg의 노동량을 채워야 하는 곳이다. 나 혼자만 수용소라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반독재 투쟁을 벌이는 용기를 내어 보겠다. 그러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까지 수용소에 보내진다는 그 공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도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연좌제이다. 1972년 김일성의 연설 “종파분자나 계급의 적은 그 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들의 종자를 3대에 걸쳐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는 것에 따라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내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 아무 잘못 없이 끌려온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장본인’ 이라 놀려댔었다. 수용소 안에서는 정치범은 ‘장본인’ 이었고 정치범의 가족들은 ‘비장본인’ 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는 정치범 장본인이니 억울하지도 않지만,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끌려온다 말인가! 이름조차 들어 본 적 없는 친척이 반동이라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와 평생을 꼬리 없는 짐승으로 살아야만 하는 정치범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연좌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21세기에 북한에서는 수령세습독재가 가능하고 김정일은 300만명을 굶겨 죽이고도 위대한 장군님으로 칭송 받는 것이다.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만 없어져도 북한의 민주화는 절반 성취된 셈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사찰단만이라도 보냈으면 현재 북한의 3대세습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북한 독재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정치범수용소이고 연좌제이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수용소를 없애고 연좌제를 없애라고 말하는 날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유엔이 연좌제를 없애라고 요구해야 북한 주민들 중 용기 있는 자들이 뭉칠 수 있을 것이다. 장마당으로 모인 북한 주민들이 ‘도둑놈 김정일·김정은은 물러가라’ 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저 먼 땅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를 보면서 북녘 땅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상상해 보는 것은 나만의 헛된 바램일까? ●●



경계에 선 소리

학생부우수상(재인니한인문인협회장상) / 윤소정(JIKS 11)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솔직히 인도네시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여서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는 친숙할 뿐이다. 인도네시아는 내 고향도 아니고 내가 정착하여 오래있을 곳도 아니다. 단지 아빠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움직여 다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가족과 함께 또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여태까지 정말 마음 둘 곳 없이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헤어졌다. 그러면서 마음의 정착이 쉽지 않음을 배운 나는 ‘투덜이’가 됐다. 어찌면 내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인도네시아’라는 단어에 불만이 많이 섞여 있어 싫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인도네시아는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다.

하늘에서 어마한 양의 비를 퍼부을 때나 태양이 살 속 깊이 파고드는 빛을 쏘 때나 무관심으로 무감각했던 나. 하지만 집보다 바깥 또는 차에서 더 많이 생활하게 되는 요즘에는 무심결에도 나는 생각에 빠진다. 그 생각을 열어보니 내가 처음으로 이 나라와 만났던 그 느낌이 다가왔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깐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살게 된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막 정착했을 때, 어려서도 그러했겠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낯섦이 끔찍하게 싫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반복되는 낯선 소리가 처음에는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아 내 몸을 경계에서

게 하고 새로운 집의 낯섦을 더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는 늘 시간 맞춰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의 기도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익숙해져 경계가 풀릴 때쯤 이 나라를 떠났고 그 느낌도 사라졌다.

지난주 금요일, 어느 때와 같이 나는 차를 타고 학교에서 집을 향하고 있었다. 건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비는 끝없이 퍼붓고 있었고 차들은 빗길에 도로를 아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다. 딱 막힌 도로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괜히 솟구쳐 나오는 짜증에 나는 신나는 노래를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나는 노래를 틀어도 자꾸만 우울해지는 마음을 막을 수 없는 날이었다. 나는 귀에서 강렬하게 울리던 노래를 끄고 빗소리로 울적한 마음을 떨치고자 했다. 빗소리에 한껏 취해 있을 때 바깥에서는 또 다른 배경음악을 나에게 선사 해줬다. 그것은 바로 늘 시간 맞춰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의 기도 소리였다. 매일 듣던 소리라 나는 빗소리에 대충 껴 맞춰 들었다. 기도 소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그냥 귀에서 귀로 흘러 나간다. 또한 들어보게 되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흥얼흥얼거리는 소리만이 내 주변에 울려 퍼진다. 그래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러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일상에 무덤덤해졌다. 하지만 이 기도 소리가 웬일인지 그날따라 빗소리 사이를 비집고 나와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줬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절실함의 소리, 자신의 잘못

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절절함의 소리, 또한 희망을 얻고자 반복해서 빌고 또 비는 그들의 간절함의 소리로 느껴졌다. 그 소리의 진실함을 알고 싶어졌다. 의미 없는 익숙함에서 친숙함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있었다. 그들에 대해 애잔한 마음이 생겼다. 이 나라를 이해하고픈 생각이 고개를 든다.

누구에게나 기도는 있다. 사람들은 절대자 없이도 소원을 막연히 누군가에게 빌고 힘든 상황에서는 벗어나게 해 달라는 자신의 최면과 같은 기도를 한다. 또한 절대자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제3의 외딴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의 기도는 모두의 기도와 같이 그들만의 마음이 담겨 있어 어찌면 더 간절해 보인다. 새벽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의 기도로 하루를 끝내는 그들의 절대자를 향한 믿음은 정말 강해 보인다. 그 만큼 힘든 것들을 절대자 앞에 내려놓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 나는 내 신앙심에 대해 부족함과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와 소통하며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간 맞춰 기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매일 흘러가는 일상 속의 사소한 한 부분으로 그들의 마음도 매일 흘러 넘치는 겸손이다. 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절대자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박한 마음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겸손은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지나친 여유로운 마음은 나태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은 그 무엇도 아니다. 서로를 위함과 제3자를 위함은 그들의 당연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도네시아를 서게 한 것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친절함이라고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경계에 서서 인도네시아를 부정하는 것은 나였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나를 환영해주며 내 생각의 벽을 깨려 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인도네시아인들과 소통하며 나는 인도네시아에 마음의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편안한 삶을 요구하며 자유로움 쉽게 안주하려는 내 마음 속에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는 정이 생겨 있었다.

해 잡으리

설레인다 / 설레어

적도의 상징성 / 깊은 자랑스러움으로 비밀 삼은 / 바람 없는 마
알근 하늘 아래 / 이리갔다 저리갔다 / 내가 흔들린다 / 그의 위엄
에 흔들린다

설레인다 / 설레어

뺏을 수 없는 / 절대성을 부리 박은

태양만이 따가운 그 아래 / 이리보고 저리보고 /
하늘을 뚫는다 /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날러간다 / 날러

유토피아에 온 아이 / 새 태양에 환영 받다

바람 없는 고오운 태양 아래 / 저 높은 적도 위로 / 내가 자리잡다

와아아- / 내가 태양을 잡았다

창밖의 하늘은 이제 비가 그치고 오묘한 잔잔함의 노을이 짙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무덤덤함과 답답함을 씻어낸 거리는 노을빛을 한껏 먹으며 푸름을 맘껏 들어낸다.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여유로움으로 바라보니 경계에서 있던 나를 잊었다. 푸름에 취해 정겨운 마음으로 창문을 여는 순간, 아직은 낮설지만 그래도 이제는 친숙한 공기가 빨리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나와 같은 말이 아니어도 내 귀는 날카롭지 않고 그 소리마저 다 받아서 마음으로 전한다. 내 모든 경계에 선 소리들은 잠잠해졌다.



한 . 인니문화연구원 제9회 열린강좌

주제 : 인도네시아 문화의 이해와 이슬람

강사 : 안선근 교수

일시 : 2011년 3월12일(토) 10:00 - 12:00

장소 : 한인회 문화회관

신유희 plentyhoki@yahoo.co.kr / 0818-708-228

사공경 sagong@hotmail.com / 0816-190-9976

Indonesian & Korean Culture Corph (카페)

<http://cafe.daum.net/IKCC>

수상소감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버린 일들이 많다. 그리고 자신의 무관심 곳에 버려진 아니 추억이 되지 못한 멋진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되돌아봄을 통하여 후회하며 문득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기대에 부푼다. 또 그 기대가 실현되지 못할 때는 끝없는 회의감과 무기력함에 세상과도 멀어지려고 한다. 하지만 되돌아봄을 감정만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놓쳐버린 일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 어떠한 일이든 자신을 깨우치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성숙을 가져온다.

지금의 말들은 나의 경험담과 같은 말이고 어린 내가 제일 먼저 깨닫고 느꼈던 것이었다. 후회를 넘어서 모든 것에 대해 부정만을 했었던 나였지만 인도네시아의 기도소리에 나는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깨우쳤다. '내 일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남고 자꾸 거슬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내 일상 속에서 늘 듣게 되는 것으로 그 기도에서 그들의 일상을 나는 배웠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여유로운 친절함 마음을 가졌다. 확산기를 통해 모든 지역에 퍼지는 기도는 그들의 위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유로운 친절함 마음을 가지기 위해 자신들의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항상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러한 내 생각을 내 자신이 직접 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사람들이 만약 내 글을 통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면 정말 더욱 더 감사하다. 시 몇 작품 썼다고 기교를 심하게 부리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끝없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당당한 시를 쓰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를 택해서 작가로서의 꿈을 더 키우고자 한다. 지금도 그때에도 읽는 이에게 정직하고 싶다.



DYNAMIC
KOREA

동포안내문

보이스피싱 유의

최근 현지인들의 현직 교수라고 하면서 한국에 자녀를 둔 교민을 상대로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자녀가 다쳐 병원비 등이 필요하니 송금을 하라는 사기 전화 사건이 발생 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한국 입국 시 입국심사인 생략

우리나라 법무부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 혼잡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2.10.(목)부터 전국의 국제공항 및 항구에서 우리 국민 입국 시 여권에 입국스탬프(입국심사인)날인을 생략하 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Tel : 021-2992-3030 Fax : 021-2992-1700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서로 돕는 한인 사회
서로 믿는 한인 사회
발전 하는 한인 사회

2010년 한인회 개인회비

번호	성명	분류	납입 금액
			Rp
1	황태근	개인(연장)	120,000
2	박상현	개인	120,000
3	김주상	개인(연장)	120,000
4	양혜경	개인	120,000
5	박성모	개인	120,000
6	이경옥	가족	200,000
7	임양진		
8	이지환		
9	정무송	개인	120,000
10	윤재현	가족(연장)	200,000
11	오현정		
12	윤석준		
13	윤석환		
14	이승열	개인	120,000
15	박수경	개인	120,000
16	이선우	개인	120,000
17	노정희	가족	200,000
18	김형기		
19	김고운		
20	최강호	가족	200,000
21	한경화		
22	유병준	개인	120,000
23	오성태	가족	200,000
24	최금옥		
25	이병기	가족	200,000
26	최금옥		

2010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2010년 납입 금액
				US / Rp.
1	한인회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US) 19,975
2	한인회 수석 부 회장	신기엽	HANINDO EXPRESS	10,000
3	한인회 수석 부 회장	조규철	DONG JUNG	10,000
4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송창근	KMK GLOBAL SPORTS	10,000
5	한인회 부 회장	김주철	STARCAMTEX	5,000
6	한인회 부 회장	박동희	TRI KARYA ALAM	4,974
7	한인회 부 회장	배도운	DOOSAN CIPTA BUSANA JAYA	5,000
8	한인회 부 회장	이지현	ZIMMOAH	5,000
9	한인회 부 회장	이진수	SUNG BO JAYA	5,000
10	한인회 부 회장	이호덕	ROYAL SUMATRA	5,000
11	한인회 부 회장	최대호	DONG SUH SECURITIES	5,000
12	한인회 부 회장	황의상	INWHA INDONESIA	5,000
13	한인회 부회장겸 감사	최상학	우리은행	5,000
14	한인회 부회장겸 감사	조용우	외환은행	5,000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곽삼섭	BOSAENG JAYA	3,000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성대	SAMICK INDONESIA	3,000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송정	UNICON INDO MESIN	3,000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우진	SAMINDO ELECTRONICS	3,000
19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은미	CEO SUITE	3,000
20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경석	DONG SUNG JAKARTA	3,000
21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세호	DUMI GLOBAL	3,000
22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완주	PAN BROTHERS TBK	3,000
23	상공회의소 부회장	장윤수	HANSARAM SAKTI	3,000
24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병우	ANEKA PANEL INDONESIA	3,000
25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창식	하나은행	3,000
26	상공회의소 사무 총장	김육찬	GARUDA TWIN	2,000
27	상공회의소 사무 차장	이주환	ROYAL SUMATRA	1,000
28	자문 위원	김영만	PT.KOREA INDONESIA PETROLEUM CO.,LDT	1,000
29	자문 위원	배상경	JAMBI RESOURCES	1,000
30	자문 위원	이진호	JIN YOUNG	1,000
31	자문 위원	이현상	ROYAL KORINDAH	1,000
32	이 사	강주석	SERIM INDONESIA	1,000
33	이 사	신유희	PT. BINTANG 2 MACHINE JAYA	1,000
34	이 사	이종환	PT. BLESSINDO BANGUN SEJAHTERA	1,000
35	이 사	강호성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
36	이 사	구자성	일요신문	1,000
37	이 사	권동순	HYUNDAI CORPORATION	1,000



번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2010년 납입 금액
				US / Rp.
38	이 사	김 경 곤	SUKWANG INDONESIA	1,000
39	이 사	김 경 국	NES	1,000
40	이 사	김 광 현	ASOKA	1,000
41	이 사	김 두 련	MIWON	1,000
42	이 사	김 상 태	SMS GROUP	1,000
43	이 사	김 영 도	QUTY KARUNIA	1,000
44	이 사	김 영 옥	GAYA INDAH KHARISMA	1,000
45	이 사	김 종 현	KOIN BUMI	1,000
46	이 사	김 진 우	SELARAS KAUSA BUSANA	1,000
47	이 사	김 형 준	STX PAN OCEAN	1,000
48	이 사	김 정 윤	교민세계	1,000
49	이 사	김 현 재	TOUR 153	1,000
50	이 사	서 영 율	PRATAMA ABADI	1,000
51	이 사	석 응 치	DAYUP INDONESIA	1,000
52	이 사	안 상 영	DAEHWA LEATHER LESTARI	1,000
53	이 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1,000
54	이 사	안 흥 제	KOLON INA	1,000
55	이 사	양 승 진	DOSON INDONESIA	1,000
56	이 사	양 태 화	BOSUNG INDONESIA	1,000
57	이 사	이 상 일	UIB	1,000
58	이 사	이 승 민	Y S M&PARTNERS	1,000
59	이 사	이 준	PT. CJ GLS INDONESIA	2,000
60	이 사	이 준 하	DAELIM INDONESIA	1,000
61	이 사	이 호 완	SEOUL MEDICAL	1,000
62	이 사	전 민 식	POWERTECH INDONESIA	1,000
63	이 사	정 용 완	HUNG-A INDONESIA	1,000
64	이 사	조 호 신	SONERGY	1,000
65	이 사	지 동 주	INTEC MAS ENGINEERING	1,000
66	이 사	진 영 휘	SK KERIS	1,000
67	이 사	차 상 만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68	이 사	최 재 경	K A L	1,000
69	이 사	홍 기 호	AURORA INT' L CO.	1,000
70	이 사	김 준 규	CIPTO ORION METAL	(Rp.) 12.000.000

재인니한인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됩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임원 및 개인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Korean Association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Indonesia

Tlp. 62-21-521-2515, 62-21-527-2054

E-mail <info@innekorean.or.id>



인도웹이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

- 소그룹활동 소개 - 건강한 삶을 위하여
- 유익한 정보 -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인도웹에서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는 인도웹 게시판의 글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교민커뮤니티가 <한인뉴스> 독자와 <인도웹> 회원들 사이에
더욱 알찬 정보 공유와 교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소개

헝스빌 다이빙 클럽은.....



* Hawksbill은 바다거북이 일종으로,
‘매부리코 거북이’ 입니다.

Hawks Bill Diving Club은 기존 오프라인 모임에서 온라인으로 확대, 성장된 클럽입니다. 현재 클럽장 UncleSUM(이건상/CMAS 다이브마스터)과 총 78명의 회원이 온, 오프라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18세 이상은 조건 없이 가입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혹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주말을 이용한 1박2일 투어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근교인 PULAU SERIBU 단기투어와, 두 달에 한 번 장거리 (발리, 마나도, 우중쿨론, 코모도 등)투어를 운영하면서 세계 10대 다이빙코스 중 일부인 인도네시아의 유명 포인트를 두

루 답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달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 및 기존 회원들의 SKILL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론교육 및 수영장교육을 거쳐 1박2일 코스의 해양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다이빙이 될 수 있도록 회원 개개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이라는 미지 탐험에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타향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씩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HAWKS BILL DIVING CLUB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UncleSUM



블랙베리,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유익한 정보



忍 [참을-인] 인도네시아라 했던가요. 정체된 도로, 직원들의 업무처리 행태, 복잡하기만 한 행정 절차 등을 제외하고라도 ‘빨리빨리’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것은 하염없이 모래시계만을 보여주던 컴퓨터 화면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마저 찾기 힘든 열악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블랙베리.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 노키아의 자리를 단 시간에 점령해 버린 블랙베리 열풍에는 당시 미대통령후보 오바마의 손에 들려있던 일명 Barack-Berry도 한 몫 단단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시간 이메일, 전용 메신저, 웹 브라우징 등을 지원하는 BIS(Blackberry Internet Service)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릴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컴퓨터조차 사용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습득하고, BBM(Blackberry Messenger)으로 이루어지는 쉴 새 없는 대화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여 사람들 간의 첫 만남에서도 PIN BBM(메신저 친구 등록을 위한 블랙베리 기기의 고유번호)을 묻는 일은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베리 열풍은 자연스럽게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 경쟁의 각축장을 만들게 되어 소비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Harian, Mingguan, Bulana(일별, 주별, 월별) 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누군가 표현했듯 ‘블랙베리 서비스의 뷔페’가 아닐 수 없습니다.

BIS에 힘입어 또 한 번의 열풍 아니 광풍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을 사로잡은 것은 현대 인터넷 비즈니스의 화두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facebook)입니다. 2010년 4월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2천4백여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

고 합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를 분석하는 각종 웹사이트 데이터에서는 2011년 2월 현재 3천4백여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4%가, 전체 페이스북 이용자의 약 6%를 차지한다고 하니 인도네시아인들의 페이스북 사랑은 가히 열광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노소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 집에서 사무실에서 피씨방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이동 중 휴대폰에서도 즐기는 facebook-an으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컨슈머 시장으로, 전 세계 20위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보유한 나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향상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는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현재 유선 전화를 이용한 TELKOM Speedy, 케이블TV망을 이용한 Firstmedia Fastnet 등 다양한 상품들이 향상된 품질과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되어 인터넷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한인 커뮤니티 인도웹에서도 변화해가는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 지길 바라며 필자의 PIN BBM을 QR Code로 첨부해봅니다. Ayo BBM-an yuk!

2011년 2월 인도웹 “말아하리”

제공 : 인도웹(www.indoweb.org)
bagus@indoweb.org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둥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7	7317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가수**

조지언 퍼니처	750	6109, 766 0364
---------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기술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량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광고 문의
521-2515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새로 올리려는 분은
한인뉴스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컷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 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 가능
- 배달 서비스가 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생활정보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뿐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삼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항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하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리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리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쉽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021 522	4666
	0858	1341 3222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셰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랑)	546	4531
에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징)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 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ISIS VILLA	862 8777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장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Sel

MISTICANZA
Ristorante Italiano alla Griglia

Phone & Fax : 021-29022837
SAHID SUDIRMAN Residence
Jl. Jend. Sudirman 86
Jakarta 10220 - Indonesia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반둥 렌트카	0813 9400 9981
반둥 한인부동산	0858 6130 8882
인니어번역 (Mrs. Lee)	021-743 2687
	021-9432 2102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Lim Tailor

40년 전통!! 최고의 기술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마춤양복 · 예복
바탕 · 와이셔츠 · 회사유니폼

유니폼! 회사의 얼굴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복을 맞춰드립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바탕!!
두 벌 맞추시면 한 벌을 더 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인도네시아 어디나 찾아가 맞춰드립니다.
0811.187.3382 // 0815.1059.0827
<http://limtailor.indoweb.org>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KOEXIM MANDIRI FINANCE 는
1992년 6월 설립이후 리스, 팩토링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해외투자기업 및 교포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사무실 이전 개소(2011. 3. 4)
더 좋은 환경에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Menara Mulia Suite 2007
Jl. Jend. Gatot Subroto Kav. 9-11, Jakarta 12930, Indonesia
Tel. (62-21)525-7261 Fax. (62-21)525-7260
E-mail: jakarta@koreaexim.go.kr

PROJECT PERFORMANCE



〈코린도 그룹 회장실〉



〈Tutti Frutti〉

OFFICE / 사무공간

- 코린도 그룹 회장실 및 Executive Floor(600m²)
- (주) 삼성화재 Office (Plaza Bapindo, 950m²)
- LG그룹 6개회사 통합Office (BEJ Building, 1120m²)
- 우리은행 (본점, Customer Center)
- 우리은행 (Cibubur, Cikarang, Tangerang 지점)
- 외환은행 (Kelapa Gading 지점)
- 한국수출입은행 (Menara Mulia 20F, 560m²)
- (주) 현대자동차 Office (Plaza Bapindo)
- (주) Lock & Lock (Menara Prima, 600m²)
- (주) KCC (Showroom)
- PT. E-1 Pertamina (BEJ Building)
- KMK Global Sports

EDUCATION & CULTURE / 교육·문화공간

- JKS (한국국제학교) 도서관
-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Window on KOREA)
- 한국 문화회관 (한인회)
- 리틀램 유치원 (Senopati, Kelapa Gading)
- 신농씨 한방병원

COMMERCE / 상업공간

- International Club "휴(HYU)"
- Restaurant "한술" "청해수산" "가효"
- Tutti Frutti (Senayan City)
- SPA "Star Place" (Sentul City, 1200m²)

RESIDENCE / 주거공간

- APT, Airlangga (Ritz Carlton Hotel)
- APT, Pakubuwono
- APT, The Peak
- APT, Senayan Residence
- APT, Capital
- APT, Bellagio
- APT, Kemang Jaya



〈삼성화재〉



〈한국 수출입 은행〉



〈LG상사〉

THE SMART WAY FOR INTERIOR @ LIVING A&I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OFFICE : 7278-0704 MOBILE : 0815-1902-0666, 0811-989-634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가듯
충실한 도약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Mens & Ladies

HEAVY CASUAL JACKET and PANTS



PT. UNGARAN INDAH BUSANA

(EXPORT-IMPORT & MANUFACTURE)

3rd Floor SATMARINDO Building, Jl, Ampera Raya No.5, Cilandak

Jakarta Selatan 12560-INDONESIA

Tlp.(021) 7800820, Fax.(021)7805823



PERAWATAN

PURNA
JUAL

SUKU
CADANG

MESIN

BAHAN
BAKAR

7

8

9

+/-

+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Truck & Bus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

HYUNDAI